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 MAGAZINE

#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_\_\_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장 \_\_\_ 고명옥 대가해물등뼈찜 한상용·김수진 부부 \_\_\_ 필라테스 미 김빛나 원장  
\_\_\_ 중앙고총동창회 김성호 회장 \_\_\_ 색의 마술사 이남기 작가 \_\_\_ 군산시의원 나종대 \_\_\_ 임피 채만식 생가터를 둘러보며  
\_\_\_ 테니스협회 정우회 \_\_\_ 성균관대 전북총동문회장 이승우 군장대 전총장 \_\_\_ 커피마을 설인선 대표  
\_\_\_ 힐링콘서트 이영미 기획자 \_\_\_ 최희섭 테니스 감독 \_\_\_ 포라리 임동숙 대표 \_\_\_ 전국 유일의 효덕목장 Cafe Cheese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시**  
GUNSAN CITY



상상을  
그 이상을  
항해!

#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http://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 사람을 키우는 대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기부계좌 안내

- 전북은행 558-23-0312120
  - 신한은행 100-011-581350
  - 국민은행 759301-01-595479
- 예금주\_ 재) 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 군산대학교 후원의 집

Kunsan National University  
House of Patronage



<b>군산효자요양병원</b> 병원(요양원) <b>063-472-8300</b>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45	<b>웨딩아이 스튜디오</b> 웨딩 사진 <b>063-466-2015</b> 군산시 대학로 388	<b>군산한우촌</b> 음식(고기) <b>063-465-6969</b> 군산시 대학로 649
<b>깜도야</b> 음식(고기) <b>063-471-9377</b> 군산시 하나문안2길 14	<b>은파아리울 레스토랑</b> 음식(양식) <b>063-464-9393</b> 군산시 은파순환길 174-4	<b>파라디소 페르두또</b> 음식(양식) <b>063-471-8525</b> 군산시 한밭로 76-11
<b>다래회집</b> 음식(일식) <b>063-464-7875</b> 군산시 대학로 394	<b>오죽</b> 음식(일식) <b>063-464-5625</b> 군산시 한밭로 17	<b>해녀</b> 음식(일식) <b>063-442-7800</b> 군산시 한밭2길 25
<b>해담</b> 음식(일식) <b>063-465-8789</b> 군산시 은파순환길 174-6	<b>하이난ISLAND</b> 음식(중식) <b>063-452-0909</b> 군산시 수송로 128	<b>오감</b> 음식(한식) <b>063-464-0166</b> 군산시 미제길 29
<b>아이씨엠</b> 출판, 인쇄 <b>063-445-1856</b> 군산시 큰샘길 1 (2층)	<b>커피니 군산대 원당점</b> 카페 <b>063-466-8599</b> 군산시 원당길 73-5	<b>하버브릿지</b> 카페 <b>063-463-7766</b>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
<b>후원꽃집</b> 화원/꽃 <b>063-466-3400</b> 군산시 문화로 141	<b>군산일식</b> 음식(일식) <b>063-468-8100</b> 군산시 부곡길 7	



후원금\_ 전북은행 558-23-0312120 재)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기타문의\_ 063-469-7321

#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아이젠카 견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 특가상품은?

이번달 한 달 동안 업체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 하는 상품입니다.

\*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 0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 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 0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견적을** 제공하겠습니다
  - 한개업체 견적이 아닌 복수 견적 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03 **아이젠카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 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 이메일 답변 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 04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의 맞춤형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0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아이젠카 군산지사장 이복 010-5265-5061



군산이 당신의 기억을 힐링해 줄꺼야

군산에  
귀한손님이 오시면  
일제강점기 가옥  
게스트하우스 이웃에  
모시면 좋습니다

히로쓰가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데크에서  
한가로운 저녁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군산 : 거위를 노래하다 촬영장소

GUESTHOUSE IUT



010-4048-8811

전북 군산시 구영1길 11-2 (군산시 신흥동 57-10)  
blog.naver.com/chunulumi





커피와 식사,  
그리고  
로맨스  
:



**COFFEENIE**  
CAFE

커피니 군산대 원당점 군산시 원당길 73-5 T. 063-466-8599



군산에서  
K-컬처의  
시작을!

**미가엘**  
실용음악  
연기학원

한동현 원장

M. 010-8298-5758

T. 063-471-7181

E. jbguitar@naver.com

전북 군산시 나운로4 현대코아빌딩 201호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의회

시민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노력하는 군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군산시의회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능하드!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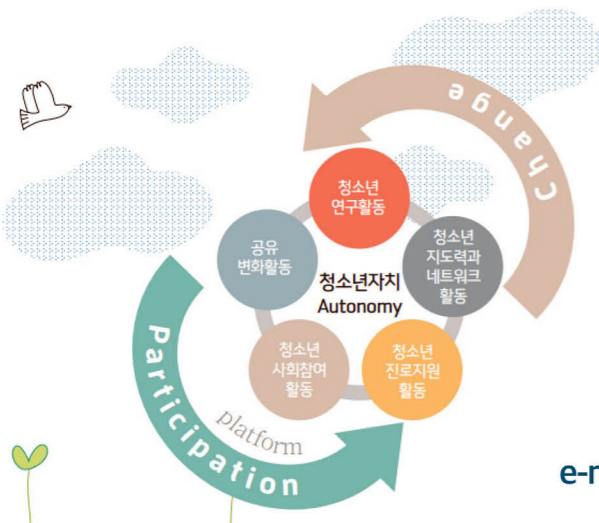
# 달그락 달그락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 맥군 회장의 세상엿보기

### 매거진군산의 세상

10년 만에 다시 글을 쓰게 됐다. 칼럼이나 수필이 아닌 한 언론사의 기사를 쓰게 된 것이다. 기자가 된 것이다. 지역의 핫 이슈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장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사고를 다루는 속보성 기사가 아닌 지역의 인물을 취재하고 소개하는 성격의 잡지이다 보니 한결 부담이 적은 글쓰기다.

과거 모 지역신문의 편집국장 겸 기자를 겸하던 시절, 매주 발행되는 종이신문과는 별개로 지역의 인물을 다루는 잡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좋은 잡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에는 출간 비용이나 시간 등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해 지역 인물잡지를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잡지 창간에 대한 꿈을 접고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난 얼마 뒤 한 젊은 친구의 도전 정신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매거진 군산> 이진우 발행인이 당당하게 시작한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예전의 감각은 없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도전해 가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애환과 성공담을 열심히 취재해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좋은 잡지를 만들어 독자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싶다.

최근 남과 북이 대립구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전단 살포 및 군사행동 예고 등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대가 많이 흘렀다. 과거에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통한 방식이 북한을 개방과 개혁의 물결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일정정도 담당했는지 모르나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과연 북한 주민과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거진군산 회장  
 전 군산시의회의원  
 이 북

올해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는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선 안 된다.

또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두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며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남측이나 북측이나 극단적인 선택에 앞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본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입금처**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 이진우 (아이씨엠)

##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 (063)445-1856

##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관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 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 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 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 (수송점) 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곰창이최고예요 (수송점) 곰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 (수송점) 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 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 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 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 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 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 282pyk@hanmail.net **Fax** (063) 446-1856



## Vol.112 | 2020.07



회장·대기자	이복	bok9353@hanmail.net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동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은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 ICM (063)445-1856  
**주소** 전북 군산시 큰샘길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 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네는 안부 17

## 기속사

남호섭

백혈병 치료 중인 아이가  
머리를 박박 깎은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여럿이 가슴 아파하며 울더니

문득, 청란이 머리를 깎았다.  
안 그래도 작고 귀여운 청란이  
동자승처럼 더 많아졌다.

다음날 친구들과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나와 옷 입기 전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레 물으셨다.

어느 절에서 오셨어요?  
청란이 잠깐, 우물쭈물하다가 말했다.  
기속'사에서 왔습니다.

- <놀아요 선생님> 창비, 2007.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시라고 하고 어린이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경남 산청에 가면 대안학교인 간디학교가 있습니다. 간디학교 교가는 노랫말과 곡이 좋아서 많이 따라 부르기도 하지요. 그곳에 교장 선생님은 남호섭 시인입니다. 시인은 학생들의 일상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으로 시를 쓴 듯합니다. 모든 시 속에 아이들의 삶이 살아 있어요. 이 시는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시 속 청란의 따듯한 마음이 느껴져 더욱 더 훈훈합니다. 조금이라도 아픈 아이와 고통을 함께 하고자 머리를 자른 정도가 아니라 깎아버렸네요. 그러니 여승인가 하기도 했을 거예요. 기속사에 사는 귀여운 여승, 청란의 모습이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과 어울린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신재순  
시인 /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 시민을 대변하다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전반기  
김경구 의장에게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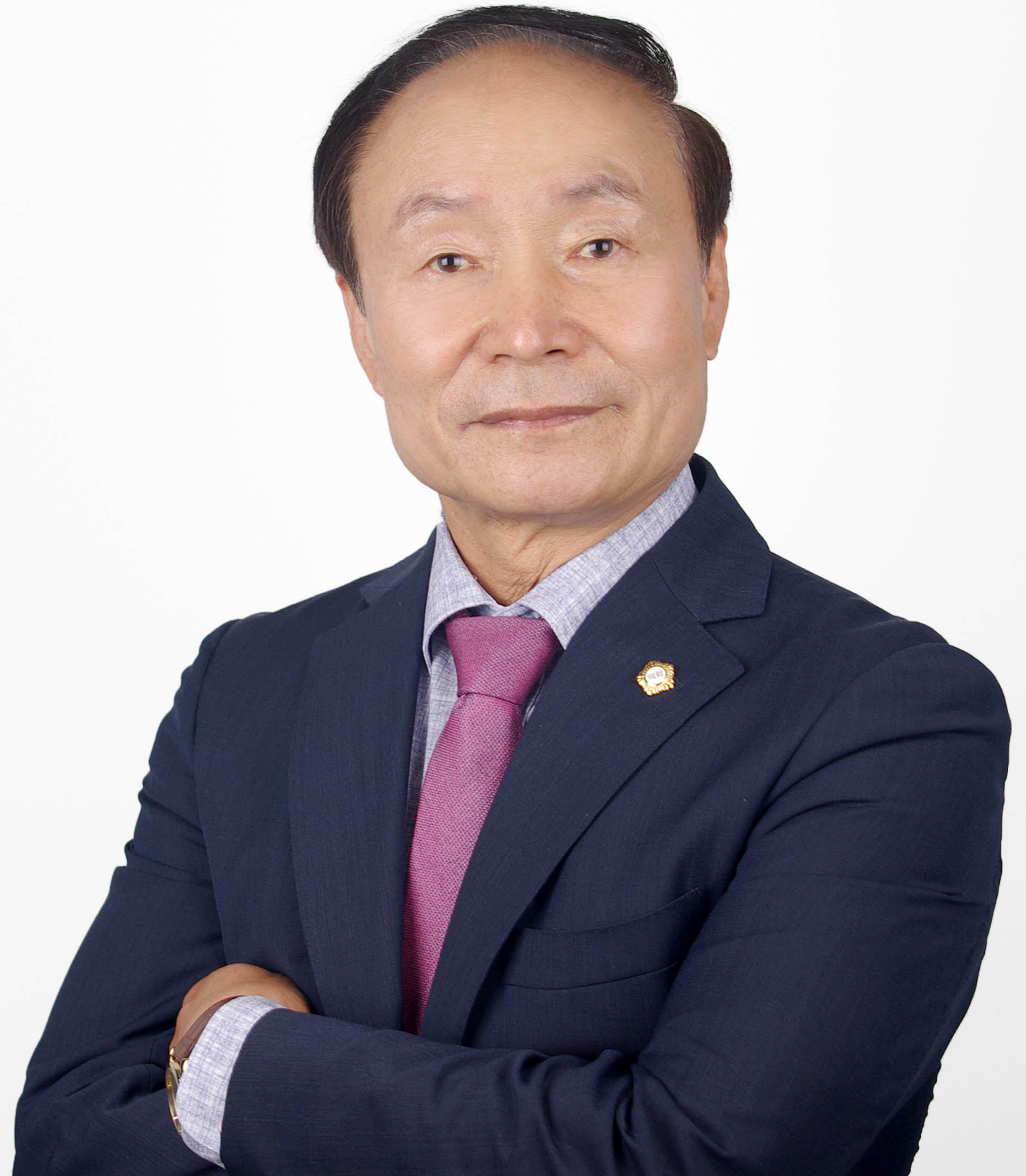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제8대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지난 6월 24일 제229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2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8대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란 슬로건을 내걸고 경청하는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생활의정을 펼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에 군산시의회 전반기 김경구 의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어봤다.

제8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는 2018년 7월 3일 출발해 2년간 김경구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비판·견제를 통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반기 군산시의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군산형 일자리 창출 촉구,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신종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임시회 개최 등 중요한 사안들이 많았던 역동적인 의회였다.

이런 중대한 사안 및 지역 현안문제 등 민감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입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준비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의원 연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경구 의장은 “제8대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란 슬로건과 함께 경청하는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생활의정을 펼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27만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대표로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정당을 떠나 동료 의원들을 늘 존중하고 상호 소통하며 대화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항상 열려있는 의장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주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숲속걷기대회

### 일하는 의회

군산시의회는 지난 2년간 안건 390건을 심의했으며, 의원 입법 발의 조례안 91건을 포함해 민생과 관련된 조례 199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또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8건의 성명서와 27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송부했으며, 조례안 199건, 동의안 83건, 승인안 5건, 예산안 11건, 기타 92건 등 총 390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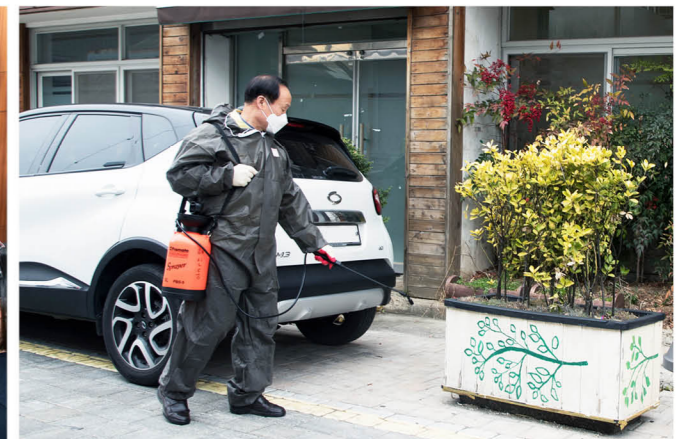
또한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 600여 건을 요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594건의 정책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 시정 견제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 질문 4건, 5분 자유발언 83건을 실시해 적극적인 시정 견제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학생들 의회견학



코로나19 방역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자 군산시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원 각각의 지역구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과 '동네 문화카페' 배달강좌 사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배달의 명수' 등 다양한 군산시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단기성 사업으로 끝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지속 가능한 정책대안에 앞장섰다.

또한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과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전북인력개발원 존치 촉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 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민의를 반영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양질의 군산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군산형 일자리 창출 촉구 건의문'과 군산시의회 주관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으기도 했으며,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인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건의문 등 지역 문제와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안과 군산시 새만금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기반 정책을 발의하고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는 한편, 기관별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지역 최초로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군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시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회

공식적인 의정활동 이외에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에도 앞장섰다. 군산시의회는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의 애로 사항 청취와 활성화를 위한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나눔으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강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무료 배식봉사를 실시했으며, '사랑의 연탄 나눔'과 '빵 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 곳곳을 돌며 방역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감염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사랑의밥상 봉사활동

김경구 의장은 마지막으로 군산시민께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군산 시민여러분께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경기침체, 소비 감소 등으로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대 군산시의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전반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시의회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산시의회도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모두와 한 뜻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년의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간 김경구 의장은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도 군산시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시민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대책본부 격려



첫 만남처럼  
기분 좋은 집

# 고명옥 대가해물등뼈찜

- 한상용·김수진 부부의 '음식과 사랑' 이야기
- '변하지 않는 맛과 풍부한 양'이 기본
- 칼칼한 게 그리울 땐 대가해물찜으로 가자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연애시절



결혼식 때



가족들

“나를 보고 싶으면 10분 안에 여기로 와~~~”

눈이 무뎠어도 많이 내렸던 2000년 1월 11일, 첫 만남에서 내심 빠져 있던 그녀가 '만나자'는 그에게 쌀쌀하게,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네가 오나 보자' 시험하는 심정으로 던진 한 마디였다.

예식장 알바를 마치고 나운동 옛 보건소 집 앞까지 한 시간을 걸어야 했다. 다니던 택시도 일찍 들어가 버렸다. 언발을 동동거리던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을 때 '운명은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는 걸 당시엔 알 까닭이 없었다.

장미동에서 일하던 상용씨가 그 짧은 시간에 수진씨에서 있던 나운동까지 오기란 불가능했다. 10분이 지났다. 도저히 못 올 거리라는 것쯤은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웬지 그녀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5분이 더 지났고 그녀의 눈 앞에 거짓말처럼 빙판 길을 달려 온 그가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동고와 중앙여고 졸업을 앞둔 상용씨와 수진씨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었다.

그 날 이후 20년이 지났고 부부는 마흔이 되었다. 사연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만 불꽃같은 청춘 시절부터 함께 한 이 부부의 '음식과 사랑' 이야기는 참 드라마틱하다.

부부는 음식점을 하면서 첫 연애 감정을 간직하듯이 맛을 지키고 손님을 대하는 데 정성을 다하기로 했다. 그 마음이 닿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고명옥 대가해물등뼈찜'이다.

## 콩나물에 숨겨진 육군과 해군의 조화

'감자탕'과 '등뼈찜', 어쩌면 늘 보던 메뉴라고 눈을 내려갈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중적인 음식은 바로 검증된 맛을 뜻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맛을 조화시키느냐가 대박이나 쪽박이냐의 갈림길이란 것쯤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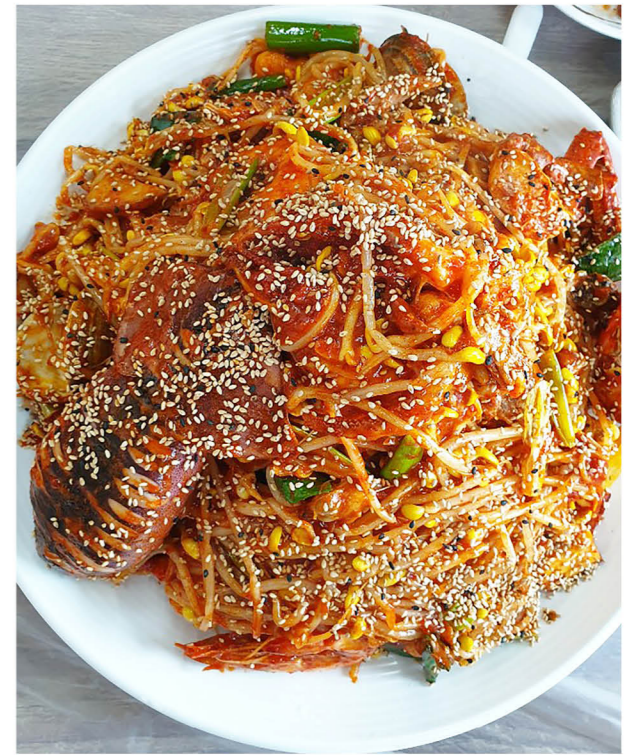
대가해물찜 산복동 본점을 하는 엄마 곁에서 음식의 기본을 배워왔던 한상용 사장과 아내 김수진씨. 등뼈를 메인으로 하는 음식이라 특징이 없다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 이 집은 등뼈보다 훨씬 맛이 좋은 최고급 목뼈만을 엄선하여 쓴다.

우선 잘 익힌 목뼈가 맛의 기본을 잡아준다. 뼈의 잡내를 잡아주면서 아삭하게 콩나물과 야채를 익혀서 달지 않은 소스로 버무려 냈다. 양념의 배합에서부터 맛을 변함없게 하려는 엄마의 20년 고집을 그대로 물려받아서인지 먹으면 먹을 수록 묘하게 끌어당긴다.

오늘의 이 집을 만든 기본 메뉴가 '우거지 감자탕'이다. 어느 감자탕집을 가도 비슷비슷하지만 이 우거지엔 감자탕과 함께 살아 온 엄마의 정성이 담겨 있다. 여기에 음식의 기본을 지키자고 손 잡고 살아 온 부부의 친절함이 배어들었으니 맛이 깔끔해질 수 밖에 없다.

그뿐이랴. 부부가 지곡동에 자리잡고 나서 등뼈와 해물을 조화시켜 만든 '해물등뼈찜'은 이 집의 대표 메뉴가 되었다. 이 해물등뼈찜을 시키면 우선 손님들의 눈과 입이 호강할 것 같다. 왕창 큰 접시에 산처럼 쌓아 올린 모습이 놀랍다.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은 비주얼인데 매운 소스에 버무려진 콩나물과 그 안에 감춰진 잘 떨어져 나가는 살점이 압권인 등뼈와 오징어, 조개, 새우, 홍합, 소라 등의 해산물이 곁들여지면서 '육군과 해군'의 묘한 맛을 낸다.





가족 단위의 손님들



모임 장소로 적당한 가게

### 첫 연애 감정을 지키듯이 맛을 지킨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걱정스러웠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나 싶기도 했어요. 너무나 인간적이었기에 끌렸던 것 같아요”

불꽃같은 청년기에 만난 두 사람은 갈 곳 없던 상용씨가 부사관으로 입대하자 군산과 조치원을 오가며 데이트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그녀는 20년전의 일을 어제처럼 기억해 냈다.

IMF로 인한 상용씨 집안의 몰락, 뿔뿔이 흩어진 가족, 엄마의 서울 식당행, 거짓말 같은 그녀와의 만남, 군입대와 부사관 지망, 장기근무 지원 탈락, 결혼 그리고 엄마와의 식당 일, 엄마와의 갈등, 선부른 개업과 실패, 처음부터 다시 배움, 대가등뼈찜의 성황, 2016년 10월말 지금의 자리(옛 운현궁)에 개업 등등.....

“너무나 순진했고, 나만 바라봤기에 ‘이 사람 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죠”

가진 게 없었지만 남편의 일편단심을 믿기로 하면서 메이크업으로 나름 전문인의 길을 갔던 수진씨는 꿈을 접었다. 그리고 함께 고된 길을 걸어갔다. 엄마가 하는 산북동 대가해물등뼈찜 본점이 손님들로 넘쳐났듯이 음식의 기본을 지키면 지곡동에서도 서민적인 맛이 성공하리라 생각했다.

2016년 10월말 예전엔 운현궁이라 불렀던 자리에 ‘대가해물등뼈찜’ 문을 열었다. 맛의 비결은 처음의 그 맛을 그대로 지키는 일이다. 요즘 상용씨는 모든 메뉴의 기본이 되는 목뼈를 서울을 오가며 직접 골라온다. 20년 경력의 엄마가 인정해줬다.

“물을 끓여 야채를 넣고 육수를 내서 고기를 삶아요. 양념해서 뜬을 들이다가 건져내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불 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요즘같은 여름엔 땀이 비오듯 쏟아지죠”

뼈찜의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젓가락으로 살을 발라낼 수 있을 정도로 2시간 이상 뼈를 삶아내는 게 기술이다.

오늘날 엄마의 이름 ‘고명옥’을 맨 앞에 붙인 ‘고명옥 대가해물등뼈찜’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말자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다. 손님들은 기본을 알아줬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집은 한가할 틈이 없었다.

### 맛은 느끼고, 배는 채우고, 사랑은 담아가세요

아침 8시면 상용씨는 엄마와 함께 해망동에서 장을 봤다. 신선한 해물을 사용해야 제 맛을 낼 수 있다는 ‘엄마의 지론’을 실천 중이다. 비싸더라도 좋은 목뼈를 골라 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기본을 지키고 그 맛을 손님들에게 드리는 걸 즐거움으로 삼았다.

“산북동에서 양푼갈비를 차렸지만 1년만에 말아 먹었어요. 음식도 잘 모르면서 덤빈 결과였죠.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동안 음식을 놓았으니 1년 동안 산북동에 와서 음식을 배워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길을 뚫고 만났던 부부의 이야기처럼 대가해물등뼈찜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음식을 다시 배우면서 엄마와 함께 개업할 장소를 돌아보다가 지금의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오직 ‘변하지 않는 맛과 풍부한 양’으로 그 험한 자갈밭에 도전하기로 했다.

“저도 배고플 때가 있었거든요. 음식이 양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맛 좋고 배부르게 좋잖아요. 그래서 푸짐하게 담아 드리고 있지요.”

이 집에 오면 감자탕과 등뼈찜 만드는 재료인 최고급 목뼈, 그리고 콩나물과 해물의 조화가 그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 평범한 메뉴에서 독특한 일가를 이룬 부부의 예쁜 마음이 손님들에게 전해지는 기본좋은 식사 자리이다.

감자탕집의 아내로 살아가는 수진씨의 곁에는 남편이 큰 나무처럼 버티고 있다. 한 때 잠 잘 곳도 없었던 ‘가난한 남자’의 마음 하나만을 믿고 따라준 아내, 그래서 그는 아내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 어느새 태연(6학년), 세빛(4학년)에 이어 늦둥이 승리(3살)가 태어났다. 엄마는 밤 늦게까지 장사하느라 아이들 클 때 고생시킨 게 맘에 걸린다.

마음이 따뜻한 부부가 장사를 하니 손님들도 참 편할거란 느낌이 들었다. 올 3월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재오픈 할 땐 코로나19가 덮쳐 오면서 걱정이 많았다. 그럴때마다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들으며 위안을 삼았다.

입맛이 없다고 느껴질 때, 혹은 칼칼한 맛이 그리울 때 가족들과 함께 여기를 찾아가보자. 서로 아껴주며 20년을 살아 온 젊은 부부의 따뜻한 서비스를 받게 될터이니 말이다.

**고명옥 대가해물등뼈찜&감자탕**  
 군산시 옥산면 계산로 95  
 (구 운현궁/지곡동 상용예가 옆)  
 예약 (063)463-6923



대가해물찜 어린이 놀이방



대가해물찜 차림표



대가해물등뼈찜 식당 전경

# 기구 위에서 더욱 빛나는 그녀

‘필라테스 미’/Pilates美·Me  
김빛나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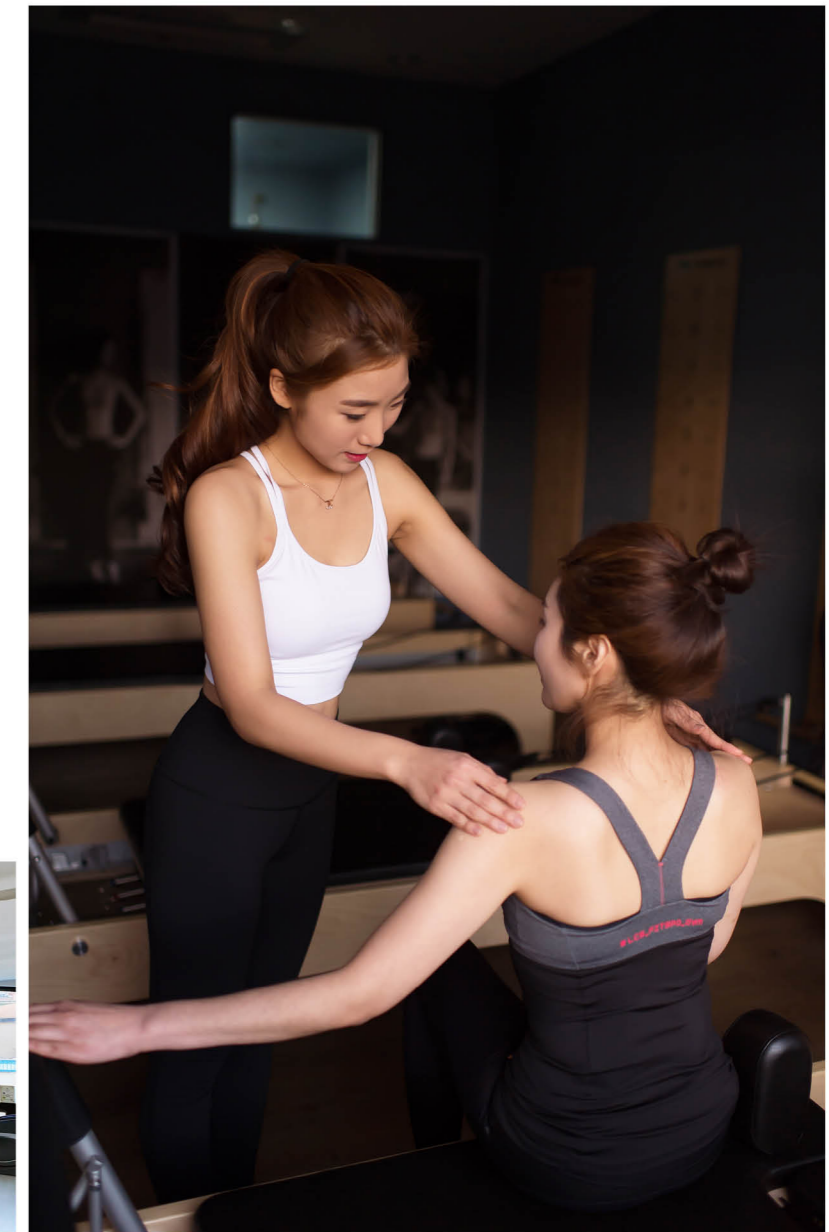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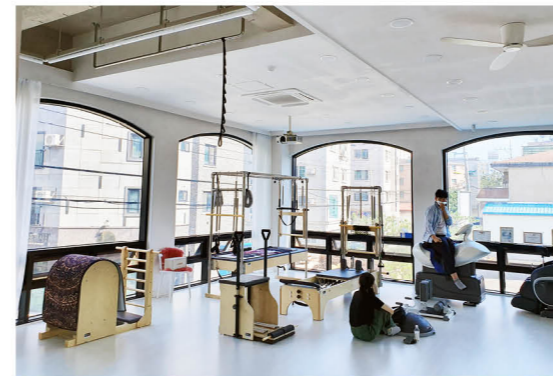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우리나라도 경제적 풍요가 이뤄지고 개인의 여가가 늘면서 인간의 행복 추구하고 관련된 영역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건강과 수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와 관련된 운동법들이 개발, 확산되는 추세다. 따라서 시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터마다 간편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이고 헬스클럽, 요가, 기공을 비롯하여 필라테스 등 새로운 피트니스 분야가 선보이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마다 신체적 특성과 개성에 따라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현상으로 읽힌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권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책도 펼칠 정도로 이제는 건강 운동이 선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는 현실이다.

지난 6월1일 지곡동에 개원한 ‘필라테스 미’의 김빛나 원장, 한 눈에 보기에도 탄탄한 몸매에 건강미가 돋보이는 아직 20대의 미혼인 그녀는 원광대 아동복지학과 졸업 후 군산대 일반대학원 체육학과에서 운동생리학을 전공한 재원이다. 운동에 관한 소질은 아무래도 부모님 유전자 덕 같다고 들려주는 그녀는 필라테스에 ‘미’를 붙인 뜻을 묻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미(美)’, 그리고 나를 위한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Me’라는 뜻도 같이한다고 들려준다.

대학생 때 취미 삼아 잠시 헬스트레이너 아르바이트를 하며 적성을 찾았다는 그녀는 이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취업으로 아르바이트를 접었다는데 보육교사 근무 시절에도 운동에 대한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 2년 반 만에 사직하고 본격적으로 필라테스를 수련, 청주에서 자격증도 취득했다.







### 필라테스 운동의 개요

김 원장에게 필라테스 운동법에 관한 소개를 부탁 하자 필라테스는 동양의 요가와 선(禪), 고대 로마 및 그리스에서 행해지던 양생법 등을 접목하여 만든 것으로 반복적 동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단련 운동이라고 들려준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단련시킨 몸을 이완하고 이를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양적인 기운의 흐름을 도입한 것으로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서 일부 정신 수양적 특성이 보유했던 심신수련 운동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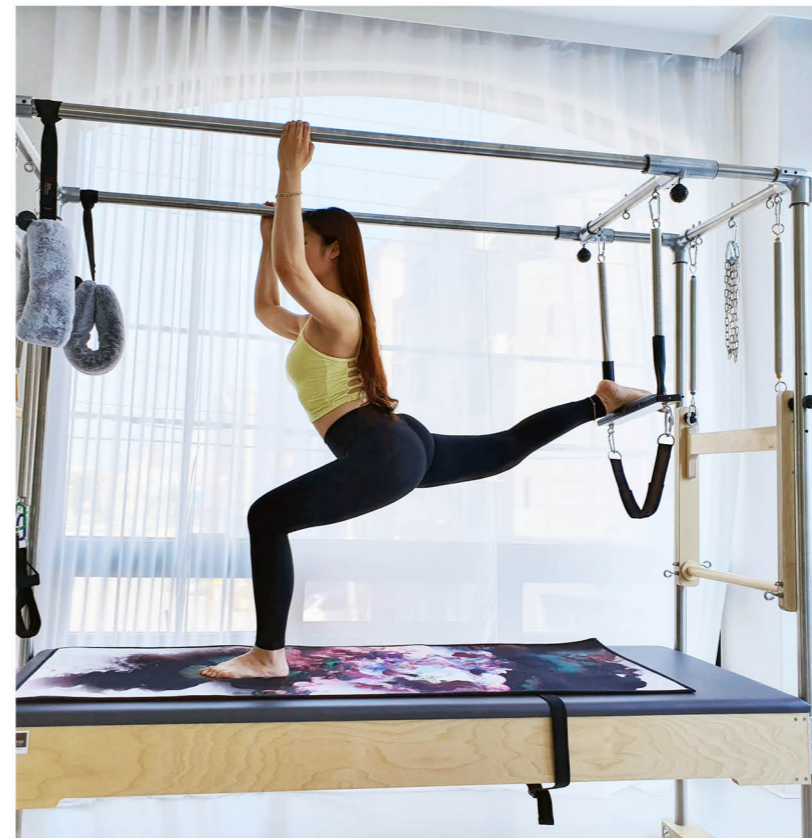
그녀에 따르면 필라테스를 창시한 사람은 독일의 스포츠 연구가인 요제프 필라테스라는 인물로서 그는 어려서 몸이 허약했던 관계로 다이빙, 스키 등의 운동을 시작했고 체육교사로 활동한 적도 있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때 포로수용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포로들의 건강을 위해 고안한 운동이 필라테스의 원형으로서 종전 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필라테스 보급에 힘써 이후 일반인들에게 널리 확산되었다고 한다.

### 필라테스의 종류, 특성 및 효과

필라테스는 반복된 동작을 통해 근육을 운동시키며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아랫배와 엉덩이 부분을 '파워하우스(Power House)'라 명명하고 이 부분이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여긴다. 이에 따라 모든 동작에 고유의 호흡패턴을 접목하여 운동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데 이 파워하우스 강화를 통해 자세 교정과 구체적 근력 강화로 유연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심신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상해 방지 및 재활 효과와 더불어 심폐 능력과 순환기 기능의 강화,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과정을 통해 긴장해소와 스트레스 감소에도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진다.

김 원장은 기초 입문자의 경우 개인 체형과 목적에 맞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아직 개원 초기로서 효과를 체험한 원생으로부터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의 경우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30~40대의 등록이 많고 대개 1:1 지도를 희망하는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필라테스 운동은 기구필라테스, 소도구필라테스, 플라잉요가, 발레핏, 번지핏 등으로 종류를 구분하며 기구필라테스에 있어서 대기구의 경우 캐딜락, 리포머, 체어, 바렐 등이, 소기구로는 박스, 볼, 링, 스파인 코렉터 등의 다양한 소품들이 응용된다. 김 원장은 향후 어린이의 성장발달과 성조숙증, 비만 등의 예방 및 개선을 돕기 위한 '키즈필라테스'와 '임산부필라테스'를 운용할 계획으로서 이에 관한 논문도 작성 중에 있으며, 7월 중 이태리에서 기구가 반입 되는대로 번지로프에 매달려 달리기 및 회전운동을 할 수 있는 '번지피트니스'를 개강할 예정이라는 말도 들려준다.



### 김빛나 원장

Classical pilates Education Instructor  
 번지플라이 Master Trainer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국제 요가지도사2급  
 소도구·발레필라테스  
 산전·산후 필라테스  
 임산부 영양관리사 PNP  
 측만행동치료법/필라테스  
 Naver엑스퍼트 필라테스 전문가

### 필라테스 미

군산시 상지곡안3길31(2F)  
 HP.010-9656-4664



범 광동인 일체감과 화합 다지기에 앞장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

## 군산 중앙고총동창회 김성호 회장 취임

글 | 이복(백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명문 사학인 군산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주신 2만여 동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지만 맡은 바 책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총동창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19일 제15대 군산중앙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김성호(60) 회장의 각오에서 김 회장의 총동창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느껴진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수개월 동안 취임식을 연기했던 김 회장은 이날 전북산악연맹(회장 김성수)과 군산보건소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방역 시스템으로 안전한 취임식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 김 회장의 지도력과 세심함이 돋보였던 모습이다.

김 회장은 군산중앙고 총동창회장으로서 집중력 있는 동창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각오를 담아 임기 2년의 단임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한다.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공약의 큰 밑그림을 물어보는 질문에 일순위로 밝힌 내용이다.

향후 2년 간, 단 한 번의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모든 역량을 다 쏟겠다는 의미이다. 총동창회의 선 순환적 계승을 통해 많은 동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또한 군산 중앙중과 중앙고를 통합한 중.고 총동창회를 결성하겠다는 김 회장은 이를 통해 범 광동인의 일체감과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총동창회의 기틀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시청 등 직장 재직 동문회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직 동창회를 결성하지 않은 기수의 모임 결성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에도 앞장 설 계획”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보다 활기찬 총동창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다방면에서 성공한 동문들을 발굴하여 총동창회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고,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총동문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회장으로서 먼저 발품을 팔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현재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골프회(양골회)를 비롯하여 산악회, 당구회 등 동문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동문 간 소통과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제반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회장단 회의의 매월 정례화를 통해 총동창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의견 수렴과 공고한 단합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힌다.

김 회장은 특히 동문 대리운전을 통한 수익사업 전개와 동문 사업장에 홍보 스티커 부착, 모교 태권도부 부활 등 총동창회 주요 사업들을 적극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임도 힘주어 덧붙였다.

김성호 회장은 “중앙고 총동문회가 오늘까지 쉽 없이 달려온 것은 선후배 동문 여러분의 동참회에 대한 애정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취임식을 빌려 먼저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교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여하는 중앙고 총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각오와 당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성호 회장은 1979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평화동에서 '전북안전유니폼'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고 총동창회의 산증인으로 모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마당발로 화려한 인맥과 친화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사)문화기획 평비재' 이사장,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회 나누는가' 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사랑의장기 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 친선대사'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그리고 '군산시 새마을중앙동협의회' 회장, '(사)보훈무용예술협회 군산지부' 고문 등 여러 사회기관과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는 등 매사에 열정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군산중앙고총동창회 신임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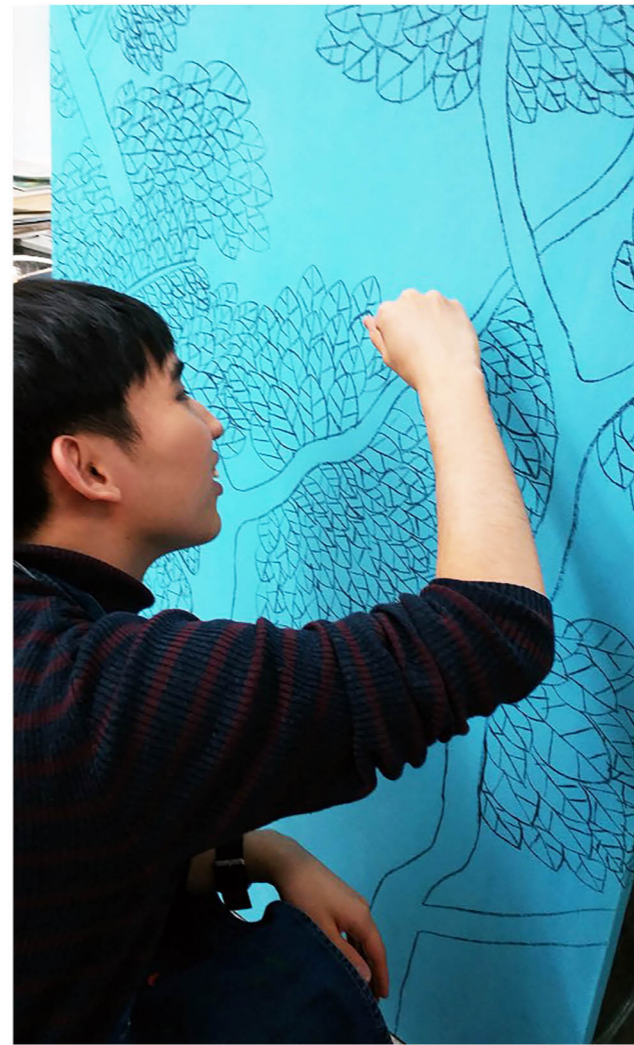
- ◇회장 ▲김성호(22회)
- ◇수석부회장 ▲최동철(22회)
- ◇부회장 ▲설경석(22회), 이정호(25회), 김경운(26회), 고행준(27회), 홍관표(28회), 이상현(29회), 하승호(30회), 이형선(31회), 강정남(33회), 양성관(34회), 홍성철(35회), 조동진(36회)
- ◇감사 ▲문영(19회), 신기섭(20회), 조영보(27회)
- ◇사무총장 ▲신복식(24회) ◇사무차장 ▲김제철(27회), 장병훈(32회) ◇총무국장 ▲전재호(23회) ◇기획국장 ▲박태준(29회) ◇문화국장 ▲전병수(35회) ◇협력국장 ▲최원용(32회) ◇상조국장 ▲양성용(28회)

# ‘색의 마술사’ 이남기 작가

다양한 색(色) 통해  
자연과 풍경 표현

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창의적 활동 매진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는 작가의 고민이 수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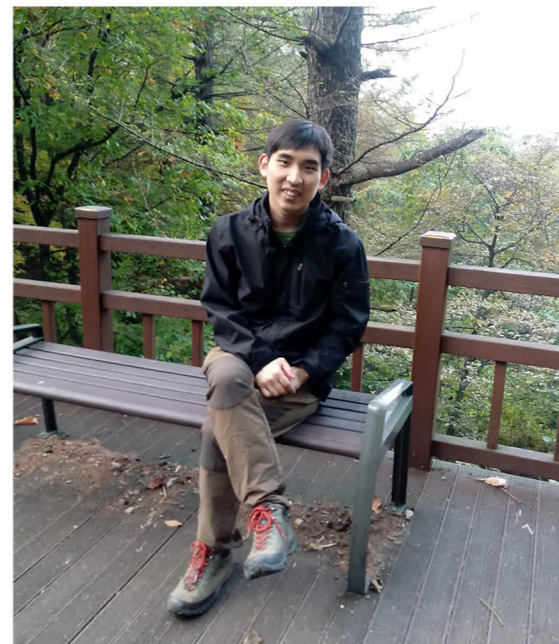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물을 관찰하고, 스케치와 채색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내가 본 것을 보여 주는 작업이다. 화가들은 저마다의 화풍이 있고, 그림을 통해 단순 표현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스물일곱 청년인 이남기 작가가 보는 세상은 다양한 색(色)으로 구성돼 있다. 온갖 색이 모여 하나의 세상이 이루어진다.

누구보다 순수한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캔버스에 자신의 심상을 표현한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년 작가의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햇빛을 온 몸으로 받는 나뭇잎의 색은 진초록과 연초록이 공존하고, 맑은 하늘과 비 구름을 머금은 우중충한 하늘의 색은 다르다. 아스팔트 도로를 비집고 자라난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도 저마다의 색깔을 갖고 있다. 이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이다.

“남기의 작업은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색을 선택할 때 캔버스를 응시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어디에 무슨 색을 쓸까’ 한참 생각한 뒤 속속 색을 그려넣어요.”



강이 있는 마을 73x60cm 아크릴화



이남기 작가의 어머니 최정숙 씨는 “아들의 작품은 다양한 색이 내포돼 있다”며 “풍경을 관찰 할 때도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색을 사용한다”고 했다. 자폐성 장애 2급인 이 작가는 어머니 최 씨와 일주일에 두 번 나운2동 주민센터에서 그림 작업에 몰두한다.

이 작가는 군산예술의전당,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갤러리, 나운2동 주민센터, 나운동 카페오라 등 지역 곳곳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이남기 작가의 그림을 세상에 선보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성장 과정이 남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유년 시절 유난히 언어 습득이 느리고 상동(常同) 행동을 보이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이 작가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발달상태 검사를 했고, 자폐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 최정숙 씨는 밤낮으로 아들과 함께했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승마, 수영, 피아노, 그림 등 남기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았고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 하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초등학교 재학 시절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직접 그린 그림으로 탁상용 캘린더를 제작해 학교 선생님들에게 선물했다. 2013년부터는 캔버스에 아크릴화를 그렸다. 이 작가의 방은 점점 자신의 그림으로 가득 찼다.



소백산 박새 26.7x22cm 아크릴화



동백나무 49.5x49.5cm 아크릴화

“그림 너무 많아서 전시회 갖다 줘야겠다”

어느 날 나온 아들의 말에 최 씨는 전시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남기 작가는 <전국 장애아동 미술공모대전 금상>(2006), <장애아동 미술대회 전북일보 사장상>(2006), <전국 모악실기대회 특별상>(2007), <전북 장애학생 미술 실기대회 최우수상>(2007), <‘힘내라 대한민국청소년 전국 학생 글·그림 공모전 특별상’>(2009)을 수상했다.

이 작가의 작품은 기성세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동심을 표현한다. 무미 건조한 캔버스에 사물을 거침없이 스케치하고, 순색의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숨을 불어넣는다.

이 작가를 지도한 류인하 화백은 “남기의 작품은 일차원적 공간에 펼쳐진 자연을 거침없는 스케치와 물감에서 나오는 순색으로 표현하는 기막힌 그만의 해석이 있으며 타고난 색감과 재능을 겸비했다”고 말한 적 있다.

현재 이남기 작가는 ‘맨드라미’와 ‘새’를 소재로 작업하고 있다. 마무리된 스케치에 무슨 색을 입힐 지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지난한 고민의 과정이 끝나면, 이남기 작가의 캔버스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색의 맨드라미와 새가 그려져 있을 것이다.

이 작가는 “앞으로도 그림 그리기에 열중할 것”이라며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수송동 시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 나종대 시의원

“집행부 견제가  
의회 본연의 일입니다”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실시된 군산시 바 선거구(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종대(55세) 시의원을 만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다.

“그동안 지역에서 봉사활동 등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정치를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미력하나마 지역발전에 힘이 되고자 시의원에 뛰어들었지요. 임기가 2년여에 불과하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함께하는 것은 함께 하겠지만 견제할 것은 철저히 견제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집행부를 긴장시키고 있는 나 의원이다. 나 의원은 전체 시의원 23명 중 무려 19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만큼 무조건 집행부 의견만 추종하는 시의원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나종대 시의원은 중앙초와 남중, 군산고교를 졸업하고 군산대를 졸업한 순수 토박이로, 30여 년 동안 건축자재 도소매업인 ‘영진건축자재 백화점’을 오롯이 운영해 온 사업가이기도 하며, 수송초교 운영위원과 군산시체육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군산시 스포츠클럽 부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당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산경제활성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군산시의회 제5대와 7대 의회에서 활동했던 나종성 전 시의원의 친동생이기도 한 나종대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 당선으로 친형의 선거구를 이어받아 형제간 당선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으로 당선이 보장된 번호 ‘1-가’ 후보가 아닌 ‘1-나’ 후보로 출마해 무려 1만여 표가 넘는 놀라운 득표력을 보여 지지층의 폭이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마디 말보다는 주민 여러분의 백 마디의 말을 듣는 자세로 일일이 경청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무게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의 가치를 존중하며 주민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항상 주민여러분 가까이서 소중한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겠다는 나 의원의 일성은 그만큼 그의 지지층이 탄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종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미장, 지곡 주민센터 분관'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지난 2009년 준공된 현 수송동 주민센터는 폭발적인 인구유입으로 각종 민원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행정민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미장동과 지곡동에 주민센터 분관을 각각 설치해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탄력형 주차장을 확대하고 인도 턱 낮춤공사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고령화 사회와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체육계에서 활동한 만큼 지역 내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했다. 주민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송동 최대 현안인 경포천 수변 산책로 보강과 주변 산책로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경포천 수변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조경시설과 운동시설 등 주민 쉼터공간을 확보하고 폐 철길을 활용해 꽃길 및 식재를 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친환경 공원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 좋은 건 발전시키고, 부족한 건 개선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나 의원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민원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군산의 신도심이면서 주차난과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송동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나종대 의원의 시험대가 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임피 채만식 생가터를 둘러보며

# 채만식 생가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글 | 한상희(소설가)  
tarpenter052@naver.com

오랜만에 임피 소재 채만식 생가터를 다시 둘러봤다. 군산에 정착한 후 이번이 세번째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채 잡초 등이 무성한 그의 집필실과 묘지 주변을 보는 순간, 문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도 아팠다. 다른 문학 애호가분들이 이곳을 찾았다면 제일 먼저 군산시 당국에 대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그래서 그런지 평소 그럴싸하던 향교 앞 채만식 도서관도 오늘따라 왠지 초라해 보였다.

내친 김에 임피 역사와 그 주변도 관심 깊게 둘러봤다. 여기서는 옛 '새마을' 호 열차 2칸에 설치된 내용들 대부분이 채만식 작가의 작품세계를 홍보하는데 더 주력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 역사(驛舍) 이력 배경보다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보는 순간, 군산시 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홍보물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굳이 부연 설명하자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뜻이다.



흉물스런 채만식 집필터



잡초만 무성한 채만식 묘지

돌아오면서, 채만식 문학관도 다시 찾아왔다. 이곳 역시 문학관 운영 전략과 관련, 여러 면에서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채만식 문학사업 추진 당면과제에서 소요 예산보다 그의 친일전력이 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음날 고창군에 있는 서정주 문학관(미당문학관)을 급히 찾았다. 서정주 시인도 채만식과 마찬가지로 친일전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는 그의 친일문제는 채만식보다 심각하다.



임피역에서 필자



고창 서정주 문학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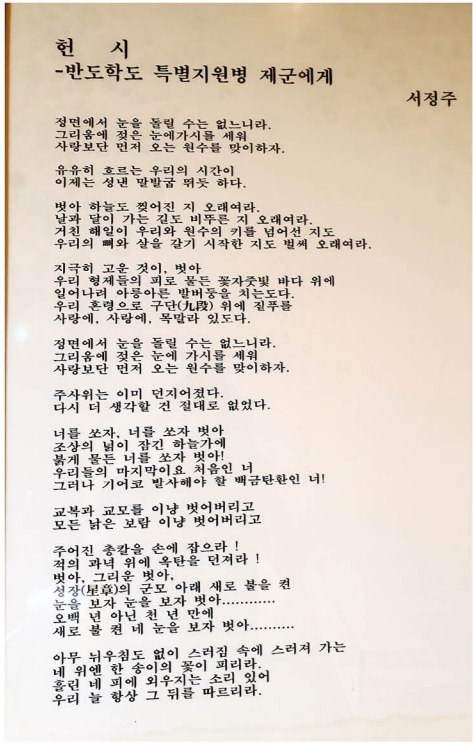
군산시는 역사박물관과 곳곳의 적산가옥 등 일제 잔재들을 내세우면서, 관광자원 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군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그 대상들을 관심 깊게 살펴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노력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세 느낄 수 있다. 전시물들 대부분이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 온 아이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산시는 한 걸음 더 진보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의 관광객 유치에 만족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았으면 한다. 군산을 진정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직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채만식과 서정주 모두에게 있어 각자의 문학적 우수성 차이 여부를 떠나 씻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친일전력이다. 이들 모두 1949년 반민특위에 잡혀갔었다. 여기서 서정주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강력히 믿었다.” 라는 등 구차스런 변명만 늘어놓았었다. 이 때 함께 잡혀간 춘원 이광수 외 기타 문인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군산이 낳은 채만식 작가만은 확연히 달랐다. 그는 이보다 1년 앞선 1948년 <민족의 죄인>이라는 중편소설을 통해 자신의 친일행적을 공개 참회했었다. 문인들 중 어느 누가 이처럼 과감히 공개 참회한 적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채만식을 연구한 국문학자, 문학가들도 그의 친일행적을 <메밀 꽃 필 무렵>의 저자 이효석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다. 게다가 그는 1919년 4.4일 임피 만세사건 때 참여했다가 일본경찰에 잡혀가 8개월간의 옥살이를 치르기도 했었다.

공개 질문해보자.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느 누가 이효석을 친일작가로 강력 매도하고 있는가? 군산 내에서 친일작가라고 매도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권위 있는 그런 학자들만큼 채만식의 문학성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시 말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뜻이다. 혹여 자신의 어떤 민감한 이해관계에 따라 채만식의 친일전력에 매몰돼, 그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필자는 이 점이 가장 궁금할 뿐이다.





서정주의 친일전력 사례/출처: 서정주 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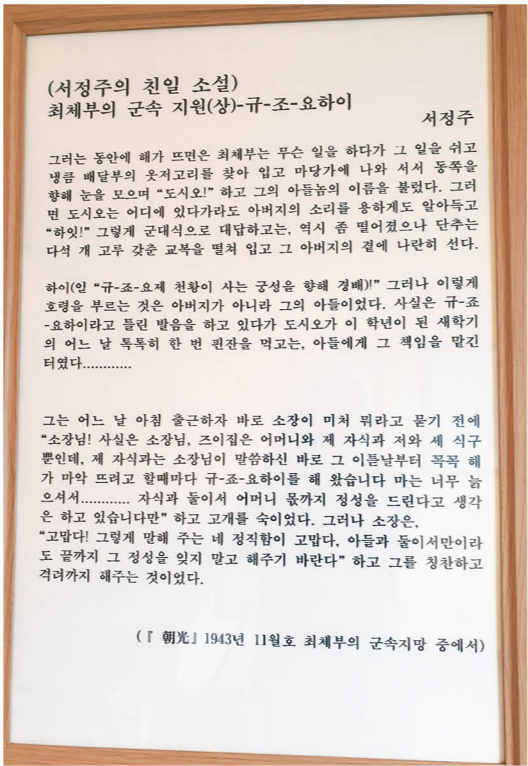
친일과 인간성 문제는 별개로 두고, 이제 대한민국의 문학적 미래를 위해 그들의 문학성과 업적들에 더 초점을 맞추어 추모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때도 됐다고 본다. 우리는 1920~30년대에 팽배했던 대동아공영 분위기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 그 때는 조선이 일본 수중으로 완전 넘어갔다고 믿는 사람이 압도적이었다. 당시 감성이 앞서서 문인들에게 일제의 회유협박에 무슨 힘으로 버텨낼 수 있었겠는가? 정말 친일 단죄 문제를 논하고 싶다면, 저기 동작동 등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악질 친일 인사들의 묘부터 파내자는 목소리가 급선무다.

사건임을 전제로, 필자는 그간 이루어 낸 이 두 사람의 문학적 업적을 냉정히 비교해 볼 때 지체 없이 채만식 작가의 손을 번쩍 들어주고 싶다. 채만식이 서정주처럼 장수했다면 지금처럼 친일전력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을까? 서정주는 친일도 모자라 박정희뿐만 아니라 전두환 신봉자로 변신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대중으로부터 문화훈장까지 수여받은 사람이다. 채만식도 장수했다면 분명 대통령 문화훈장이 아니라 그 보다 더한 서훈을 수여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정주 씨보다 문학성이 더 우수한 천재작가였기 때문이다. 채만식작품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선 이의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함부로 채만식 친일전력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의 무식을 만천하에 은연중 드러내지 말기를 바란다. 소설가 황석영 씨도 채만식을 조선 3대 천재 작가 중 한명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던가? 탁월한 문학적 자질에도 불구하고 채만식과 비슷한 친일전력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가 바로 사슴의 시인 '노천명'이다. 이들에게 있어 공통점은 도도하기는 했지만, 문학적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올곧고 단명(短命)했다는 점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얘기해, 그럼 고창군과 군민들은 생각이 모자라 서정주 문학관을 오늘 날처럼 일관되게 추진해 왔을까? 2014년에는 고창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도 마쳤다. 그런데 서정주 씨에게 친일전력만 걸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1981년 TV에 출연해 5.18의 원흉 '전두환' 씨를 공개 지지하는 어리석음(?)까지 보였다. 문인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전라도 태생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상인이라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천성적으로 시류 편승에 능한 자라 아니할 수 없다. 나쁘게 말하면 간, 쓸개도 없이 영혼 팔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는 군산만큼 서정주의 친일전력이나 정치편력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물론 그곳 태평양 유족 등이 여전히 그의 친일전력을 제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어쩌면 그들의 주장이 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 피력에 대해선 생략하겠다.



서정주의 친일전력 사례/출처: 서정주 문학관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순천

그런데, 군산에서는 어떤가? 군산시에서 일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그의 친일 전력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시민들 대부분은 이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뜻있는 인사들이 중지를 모아 채만식 문학관 후속사업들 추진에 강력히 앞장서야 한다. 이는 어쩌면 군산시민의 문학적 자존감과 직결돼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군산시 당국의 문화적 마인드다.

하다못해, 군산시 해당공무원들은 전남 순천에 있는 <뿌리 깊은 나무> 발행인 한창기 박물관과 국가정원 내에 있는 장편소설 <무진기행> 등의 저자 김승옥 문학관, 그리고 벌교에 조성돼 있는 조정래 문학관 등을 한번 둘러보고 강한 자극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서정주 문학관이나 한창기 박물관 등을 찾았을 때 정말 감동받은 것은 문학을 전공한 국문학 박사급 학예실장 운영 실태였다. 더 상세히 얘기해서 무엇 하리오. 이 점과 관련해, 군산시 당국과 채만식 문학관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군산시가 지역 번영을 꿈꾼다면 기업유치 노력 못지않게 하루속히 차원 높은 문화예술 사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문화예술 사업을 동반하지 않는 국가치고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받은 나라는 없었다. 웰빙(well-being)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가 여태까지 채만식 문제 해결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을 뿐이다.

불문곡직하고, 군산시와 무조건 채만식 친일전력을 빌미삼고 있는 인사들의 각성이 절실해 보인다. <혼불>의 저자 최명희 작가나 <태평천하, 탁류> 등의 채만식 작가는 정말 전북이 낳은 위대한 작가들임에 틀림없다. 이는 전국적으로 볼 때 전북의 민감한 자존심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로, 필자 역시 공직에서 30년간 재직하다 은퇴하기까지 재외공관 근무를 포함해 유럽전역과 미주지역 박물관, 미술관 및 문학관들을 관심 깊게 둘러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곤 했다. 이 기사를 쓰는 것도 그간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기반을 토대로 한 것이니, 한 치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다음호에 계속)



소설가 한상희  
담양 출생  
성대 영문과 졸업  
홍익대학원 미술사학과 중퇴  
장편소설 등 20권 저술



군산시테니스협회  
창립 열 한돌 맞이한  
‘정우회 (正友會)’

글 | 이복(백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6월 중순임에도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한 낮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지표면에서 솟아나는 열기는 섭씨 30도를 훨씬 웃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라랏차~ 힘껏 서비스를 넣으며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들과 테니스 코트장의 열기는 한 낮의 무더위에도 지칠 줄 모른다.

테니스는 운동과 함께 예의도 함께 배울 수 있어 ‘귀족 스포츠’, ‘신사 스포츠’라 하여 오래전부터 사회 저명인사나 직장인들이 즐겨 하던 운동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스포츠인들이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현재 군산시에는 36개의 직장 및 동호인 클럽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중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동호인 클럽이 있다. 올해로 창립 11돌을 맞이하는 ‘정우회(正友會)’가 그 주인공이다.

정우회(회장 박규만)는 창립 11돌을 맞이해 지난 6월 14일 군산대 교수테니스코트장에서 창립 기념대회를 가졌다. 나운동 주공5차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 코트장을 이용하며 회원들 간 친목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정우회가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코트 사정이 좋지 않아 군산대 교수코트로 장소를 옮겨 창립행사를 치른 것이다.



정우회 회장 박규만



정우회는 지난 2009년, 당시 레슨을 하고 있는 최희섭 코치를 통해 강습을 받던 초보자 10여명으로 창립된 동호인 클럽으로 아직 역사는 일천하지만 꾸준히 회원이 증가하면서 군산의 대표적인 테니스동호인 클럽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의 짧은 클럽 역사 속에 이상언 회원은 군산새만금배 전국대회 신인부 우승과 부여 굿뜨래 나이스배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기쁨을 토하며 유한성 회원과 함께 금배로 승격됐으며, 이상훈, 박정민, 고광선 회원은 은배로 승격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군산시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는 단체전 1부 리그에서 정우회가 3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실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클럽의 역사나 선수층이 두텁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클럽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우회 박규만 회장은 “창단 당시만 해도 레슨을 하던 회원들 중심으로 정우회를 창단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꾸준히 실력이 늘어나 금배, 은배 수준에 도달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회원들의 단합과 꾸준한 경기력 향상을 통해 군산의 대표적인 동호인 클럽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짧은 동호인 역사를 가진 '정우회'지만 회원들의 단합과 경기력 향상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테니스 동우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성균관대학교 전북총동문회 제6대 회장에 이승우(65세) 전 군장대 총장이 취임했다. 지난 달 13일 군산라마다호텔 2층 갈라홀에서 전북지역 동문 및 자매결연 지역동문회인 대전.세종 총동문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연말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승우 회장의 취임식은 올 2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늦춰져 이날 동문 신년인사회를 겸해 개최된 것이다.

향후 2년 임기의 성대 전북총동문회 회장에 취임한 이승우 전 총장은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동문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가족 같고, 형제 같은 분위기에 매료되어 회장직까지 맡게 되었다”며, “1,400여 전북지역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위해 각종 소모임 활동을 알차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나아가 모교와 지역발전에도 총동문회가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들 사이에서 ‘태평성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는 나라에 혼란 따위가 없어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시대라는 뜻의 고사 성어 ‘태평성대(太平聖代)’와 음이 같아 최근 세대 출신들이 중앙 정관계에 두루두루 활동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여 ‘태평성대(太平成代)’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 전북총동문회 역시 태평성대가 되도록 동문회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대 전북총동문회 이승우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인재로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하버드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귀국 후에는 순창군수를 시작으로 청와대 지방행정비서관실 행정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등 행정 관료의 길을 걷다가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인연으로 인해 전북총동문회 회장까지 맡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는 군장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제30대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제16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 전북 총동문회는 92년 3월 창립대 1,400여 명의 전북지역 거주 및 활동하는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산에는 별도의 지역동문회가 꾸려져 있다.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동문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해 전북 교수회 모임, 골프회, 산악회 등 동아리 모임을 산하에 두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균관대 출신 군산지역 주요 동문으로는 김관영(전 국회의원), 고기점(리츠프라자호텔 회장), 김항석(전 군산대 교수), 유금록(군산대 교수), 이의영(군산대 교수), 진경희(군장대 교수), 손승건(군장대 교수), 김의중(변호사), 김용선(변호사), 김정훈(성진유업 회장), 김순애(대왕제지 대표), 최재영(군산신통한의원 원장), 이우영(녹십자약국 대표), 박희옥(커피니 원당점 대표), 최재민(법무사), 석수철(군산상고 야구감독) 등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커피나무가 있는 들녘 길의 쉼터  
**군산커피마을**  
 설인선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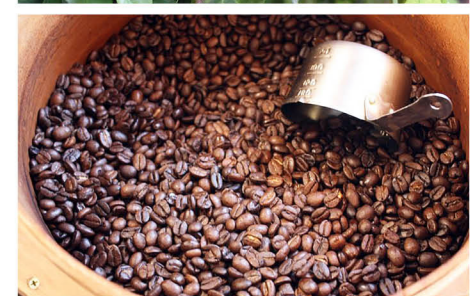


개정초등학교 앞 육교에서 옥산 방향으로 직통하는 들길에 위치한 군산커피마을.

농장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작물이 식탁까지 바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Farm to Table Cafe'를 표방하며 지난 2018년 11월 개업한 뒤 여는 카페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고객이 늘고 있는 업소다. 우선 위치부터가 사방이 특 트인 들판으로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한산한 지역이어서 이런 곳에 카페 건물을 신축했다는 것에 다소 의아심을 갖게 하는데 하지만 커피를 비롯하여 다양하게 제공되는 식재료들의 맛과 퀄리티가 뛰어난데다가 대형 하우스 안에서 육성되는 약 100여 그루의 커피나무를 비롯하여 꼬꼬마양배추밭, 여유로운 바깥 풍경, 화단의 나체 여신 조각상까지 하나같이 시각적인 맛스러움에서도 고객이 점증하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커피마을의 설인선 대표는 본래 대전 생으로 미대에 진학, 조소(彫塑)를 전공한 예술가 지망생이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커피의 매력에 빠지게 됨으로써 인생의 방향이 바뀐 케이스다. 대학 졸업 후 대전 시내에 아담한 커피숍을 개업한 것도 그 때문인데 개업 1주일 정도 되던 어느 날 손님으로 찾아온 웬 군산 남자와 평생을 같이 하게 될 줄은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단다. 솔직히 첫인상만으로는 썩 호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되고 듬직하면서도 성실해 보이는 것에 마음이 움직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는데, 사실 설 대표는 어린 나이에 악성 질환을 앓은 적이 있어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신체 일부에 불편함을 지닌 상태로서 남편은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변함없이 진실 된 애정을 보여준 것이 설 대표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았나한다.





현재의 커피마을 부지는 약 1,200평으로 남편이 일찍이 마련해둔 땅으로서 재작년 1층은 70평의 카페로, 2층은 30여 평의 주택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건물 밖 잔디 화단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과 설 대표가 전공을 살려 제작한 여체 누드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고 한 쪽 밭에는 최근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꼬꼬마양배추가 재배되고 있는데, 현재 홍콩 측과 수출 협상이 진행되는 중이라 한다. 또한 대형 온실 안에서는 갓 심은 것에서부터 4, 5, 6, 8년생까지 약 100여 그루에 달하는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일부 커피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설 대표는 원두를 직접 볶음에 있어 직화방식으로 된 일본식 소형 로스팅 기를 사용하는데 소량이긴 하지만 커피 맛은 상당히 뛰어나다. 물론 대부분의 원두는 수입산이지만 자가 온실에서 수확하는 것도 일부 사용되며 커피 경력 15년의 노하우가 접목된 핸드드립으로 제공하고 있다. 타고난 손재주에다가 끊임없는 노력으로 설 대표는 커피 외에도 다양한 푸드를 직접 가공하여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만도 모양과 색상도 예쁜 흰찰쌀보리쿠키와 빵을 비롯하여 불고기피자, 고르곤졸라피자, 페퍼로니피자, 치아바타 닭가슴살 샌드위치, 마카롱,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허니브레드, 보리팔빙수 외에도 외부 반입품으로 군산수제맥주, 조각케익 등을 망라한다.

또한 제철 식재료로 피클, 토마토소스와 우리농 산물을 원료로 한 새싹보리차, 새싹보리라떼, 새싹보리미숫가루를 비롯하여 오미자에이드, 작두콩차, 우영차, 생강차, 무차도 준비되어 있으며, 식사류로는 소불고기덮밥과 주꾸미덮밥도 제공한다. 이렇듯 미각을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먹거리와 편안한 분위기 때문인지 현재 커피마을의 고객은 여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나날이 단골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토록 혼자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상에서도 설 대표의 인상은 언제 보아도 밝다. 변함없는 사랑 속에 어떤 어려움도 지켜주고 도와주는 든든한 남편이 곁에 있기에 그럴 것이라 느끼기도 하는데, 그녀는 언젠가 사업이 안정경도에 오르고 시간이 나게 되면 휴학산처럼 억누르고 있는 예술혼을 다시 끄집어내 마음껏 그림도 그리면서 정서적으로 한껏 여유로운 삶을 구가하는 게 꿈이라며 미소를 보인다.

군산커피마을  
군산시 개정면 개정들4길 63  
T.063)454-8686



# 거센 시련 뒤에는 반드시 치유가 있다

<Healing> 콘서트와  
이영미 기획자

글 | 김태진(특별기고)  
JB문화재단 통신원  
kimtj2014@naver.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문화예술 활동 또한 축소와 위축을 면치 못했다. 문화예술의 뿌리는 사람이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문화예술 활동은 의미가 없다. 이런 타격은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지역 문화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적 역량이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사람이 없는 와중에도 지역만의 특색을 담아 차별화를 하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힘까지 빌린다. 그런데 사람이 모일 수가 없다. 야속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행사, 전시, 공연을 할 수도 없고, 한다 해도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잔혹한 2020년이다.



아픈 시기를 겪어낸 우리에게 다소 생경하면서도 색다른 공연이 찾아왔다. '감사와 위로'를 주제로 한 <Healing> 공연이다.

'어울림 페스티벌 앙상블'에서 주최한 이 음악 공연은 지난 6월 5일 19시 30분 군산 동우아트홀에서 열렸다. 2020년 아픈 봄을 이겨낸 우리에게 감사와 위로가 되는 음악 공연, 마음에 <Healing>이 되는 공연이 되었다.

2시간이 넘는 클래식 음악 공연. 지루하거나 모르는 노래만 있어 전혀 알아듣지 못 하고 만족하지 못한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했지만 120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세 지나갔다. 군산 시민들 또한 열화와 같은 환호와 박수로 <Healing> 음악회의 열광하였다.

어울림 페스티벌 앙상블의 <Healing> 공연은 서울에서도 감상하기 힘든 대단한 연주자들이 참가하는 공연이다. 이 공연이 군산에서 열리게 된 것에는 이영미 기획자의 공이 크다.





군산 태생의 음악가인 그녀는 최근 들어 지역 예술 공연에 관심을 두고 이 공연을 기획했다. 서울 수도권과 지역의 공연 문화의 격차는 크다. 지역에서는 문화 공연을 찾는 사람도 적고 이를 원하는 수요자도 쉽사리 모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런 현상은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수요자가 없기에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공연이 없고, 원래도 없던 수요자가 생겨날 토양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다.

이영미 기획자는 과감하게 그런 순환을 끊고자 이 공연을 기획했다. 군산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공연의 수요자, 팬을 만든다. 이어서 그것을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음악 공연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극복과 지역에서의 깊이 있는 음악 공연 수요의 토양 형성. 어려운 일이지만, 군산의 문화적 역량, 나아가 전북의 문화적 역량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어울림 페스티벌 앙상블  
군산본부장 이영미  
010-6371-7174



김태진



## 최희섭 테니스 감독

끊임없이 제자들 육성하는 '테니스 외길'  
연습 통해 선수들 기량 향상되는 한 해 다짐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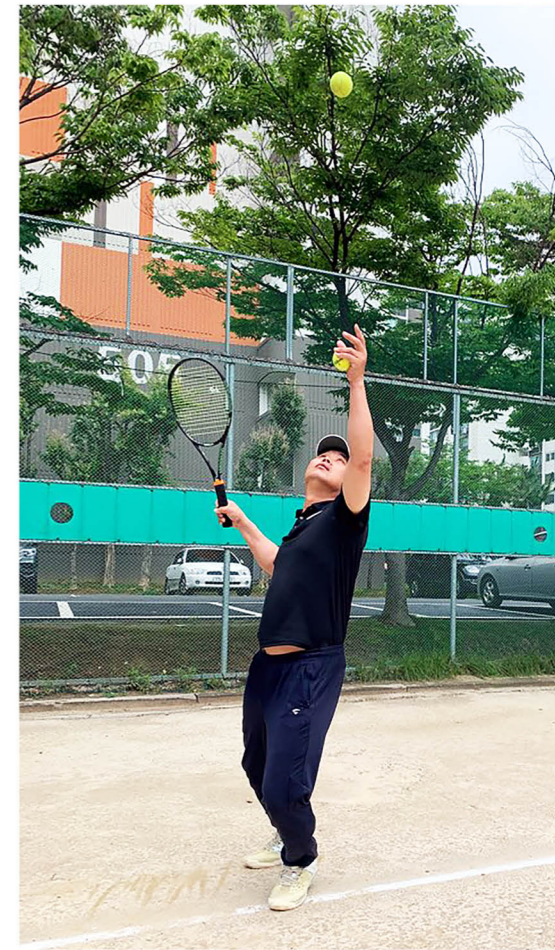
“선수들이란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대회에서 소모하는 입장이기에 항상 기량을 갈고 닦아야지요. 올해 각오는 ‘연습을 잘 하자’예요. 코로나19로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많은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릴 대회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군산시스포츠클럽(회장 문택규) 소속 최희섭 테니스 감독은 스포츠클럽의 성인반, 엘리트반 지도를 위해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

운동을 업으로 삼으며 간혹 옆치락 뒤치락 할 때도 있지만, 그는 평소 레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평소 그는 미장 아이파크 옆 테니스장, 나운동 주공5단지 내 테니스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니스를 가르친다. 라켓을 들고 설명하며, 직접 시범을 보이는 수업 시간은 그에게 있어 작은 활력소다.

최희섭 감독은 최근 대한체육회의 지역 공공스포츠클럽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장 표창장을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지역 공공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선정했다.

지난달 29일 만난 최희섭 감독은 “상반기 연습에 몰두했다”며 “현재 엘리트, 일반인 수강생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 K-스포츠 테니스 클럽 창단



주공 테니스 클럽 창단(2009)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대회 대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기량을 갈고 닦는 한 해가 되었다. 최 감독은 내년에 다시 열릴 대회들을 기약하고 있다.

최 감독에게 일의 보람을 묻자 “테니스를 통해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졌고, 많은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됐다”며 “무엇보다 제자들이 즐거워하고, 건강과 삶의 활력소를 찾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테니스를 가르침으로서 제자들이 ‘테니스가 이런 운동이구나’ 깨닫고 연습을 거듭함으로써 스포츠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좋겠어요”

최희섭 감독은 인터뷰 말미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들이 테니스를 배움에 있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다짐했다.



남원거점스포츠클럽 회장배 전국우수클럽 테니스대회(2019)



주공테니스장



그는 중학생 때 테니스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 육상선수를 하다가 체육 선생님이 발 빠르고 달리기 잘 하는 학생들을 20여명 모집해 반년 간 훈련시켰고, 그 중 3명을 선수로 발굴했다. 그 시절 본격적으로 테니스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10년간의 선수 시절 그는 두 번의 대회에서 괄목할 성과를 냈다. 1987년, 1988년 전국 대통령기 테니스 대회에 우승한 것이다. 타고난 스피드가 경기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 때의 우승은 현재 감독 활동의 밑거름이 됐다.

성인 생활체육반은 그룹을 형성해서 동호회 클럽으로 활동하고, 엘리트반은 선수 혹은 운동에 관심,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친다. 생활체육반이 40분 연습하면 엘리트반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연습에 할애한다.

굳이 선수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테니스’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해 재미있어한다면 그는 그 자체로 보람차다고 말했다. 제자들을 만난 건 최 감독에게 큰 행운이었다.

현재 (사)군산시스포츠클럽 테니스반 수강생은 엘리트 14명, 일반인들은 20명이고 클럽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16명이다. 초보자들은 필드에 서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윗 단계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운영한다. 클럽반은 대회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로, 군산에서 열리는 군산시장기, 군산시중별, 군산시협 회장배, 총장배 테니스 대회 등에 출전하기도 한다.



미장테니스장



군산 대표적 시니어 여성의류점  
**포라리·브루다문**  
 임동숙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임동숙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는 같이 있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하는 활발한 웃음과 언변이다. 그래서 그녀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다. 군산에 정착하여 두리베, 모라도를 비롯하여 현재의 포라리, 브루다문 등 여성의류점 사업을 해 온 지난 25년 동안 그녀의 고객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는 현재까지 마치 친자매처럼 우애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이토록 오랜 기간 변함없는 인간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은 서로 간 존중과 믿음이 쌓여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람을 좋아하고 신의를 중시하는 그녀의 타고난 심성이 읽히기도 한다.



사실 임 대표의 고향은 제주도이다. 평소 의류 판매 사업에 관심이 컸고 고객을 관리하는 자질도 남달랐던 그녀는 24세 무렵 당시 제주 최초로 설립된 S백화점 내 의류 매장에서 고액 보수의 매니저 영입 제의를 받았다. 누구라도 솔깃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사양하고 당시 제주에서 여성봉사특별자문단 위원을 역임하며 역대 대통령상도 수상한바 있는 홍영선 씨의 '세르마젤' 의류점에 매니저로 들어갔다. 이는 평소 홍영선 대표의 인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홍 대표는 그녀를 마치 친동생처럼 따듯이 대했고 영업 일반에 관해 세심한 가르침을 주었다. 당시 임동숙 대표가 일반적 보수의 몇 배가 보장되는 자리를 포기하고 그 언니에게 간 것에서 당장의 잇속보다 인간관계에서의 인연을 훨씬 더 중시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계기로 그 홍영선 대표와는 마치 친자매간 이상의 돈독한 관계가 되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녀의 고객 관리 요령은 무엇보다 고객의 심리를 잘 읽어내고 편안함을 준다는데 있다. 대개 아침의 첫손님으로 그날의 운수를 점치는 판매업의 생리상 손님에 따라서는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내뱉거나 심지어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지만 임 대표는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다. 아무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무례한 손님일지라도 오히려 손님 측에서 무안해 할까봐 더욱 공손히 응대하고 다음을 기약한다. 그러다보니 심중팔구 그 손님은 다시 찾아오게 되고 단골 고객으로 인연을 맺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 자질과 수완을 지켜본 홍영선 대표로서는 그녀에 대해 더욱 든직한 신뢰 속에 장래성을 엿보게 되었을 것이다.

한번은 대표인 그 언니와 하루 매출액 약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깜빡 실수로 그 가방을 그만 택시에 두고 내린 적이 있었다. 차량 번호도 어느 회사 택시인지도 몰랐던 터라 되찾을 길이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순간 절망했고 앞이 캄캄했다. 그 돈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금이었기에 그 낙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오히려 그녀를 위로해줬다. "교통사고로 신체 일부라도 잃었다고 생각해봐라. 그에 비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 기운 내라"는 그 언니의



말은 더욱 죄송함과 자책감으로 몸 둘 바를 모르게 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그 언니 역시 어찌 허탈치 않았을까마는 이를 전혀 내색하거나 책망치 않고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래서일까,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 다음날 돈을 찾게 된 것이다. 그 기사는 막대한 현금다발을 본 순간 솔직히 갈등이 컸다는 고백도 했었는데 이로써 그녀는 비로소 무겁게 짓눌렸던 마음의 짐이 내려놓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매사 신중하라는 인생의 값진 교훈으로 받아들일게 된다.

돌이켜보면 여장부로 불릴 정도로 넉넉한 품성에 통이 컸던 그 언니 밑에서 일했던 기간은 영업관리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의 많은 것을 터득함으로써 인생의 자산으로 축적한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주도의 모 국영기업 계열에 근무하던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다. 그녀는 1995년도, 남편의 직장 따라 군산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녀가 군산에 정착한 이후 첫 여성의류점 '두리베'를 개업한 장소는 중앙로 구 조화당 건물이었다. 제주의 홍영선 대표는 그녀의 개업을 누구보다 축하해줬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간 홍 대표 사업장의 매니저로서 영업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했던 터였고 어엿한 의류점 대표가 된 자신으로서는 첫 사업이었던 만큼 설레기도 했고 기대도 컸다. 하지만 개업 첫날 매출은 기대와 달리 13만 원 짜리 블라우스 한 개가 전부였다. 힘이 빠졌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과 맞닥뜨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에서 좌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각오를 새로이 다잡으며 영업에 최선을 다했다. 옷을 판매함에 있어 철저히 고객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줬고 고객이 아무리 원하는 스타일의 고가의 옷이라 할지라도 고객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고객을 설득, 구입을 만류했다. 솔직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판매하고 보는 게 급선무일 터인데 임 대표의 영업 방식은 일반적 통념을 깨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은 임 대표의 이러한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고객을 대함에 있어 어떤 옷이 됐던 고객과 잘 맞는 스타일을 추천했으며 그 고객으로서는 주변으로부터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서 구입했느냐는 찬사를 들으며 임 대표에게 더욱 신뢰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때로 반품이나 A/S 요구가 들어와도 고객의 입장이 되어

최선을 다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했고 이러한 사례가 입소문을 타며 나날이 고객이 늘게 된다.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개업 13년차 되던 2008년도 화재사건이다. 당시는 '모라도' 브랜드의 의류점을 하던 때였는데 퇴근 후 전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가게가 전소되고 만 것이다. 순식간에 잣대 미로 변한 사업장을 보며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했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갔다는 생각에 너무도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화재 원인이 분명치 않아 보험사에서도 방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조사가 시작됐는데 결국 전기 누전으로 밝혀졌지만 보험사의 담당자가 화재 원인 탐문과정에서 임 대표의 인간적 진면목을 알게 됨으로써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오히려 걱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일화를 남기게 된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사업 포기과 재기의 갈림길에 선 임 대표, 하지만 그녀가 다시 일어서게 된 데에는 당시의 고객들이 큰 힘이 되었다. 온갖 농산물을 비롯하여 그녀에게 필요할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움을 주었고, 밀린 외상 값을 한꺼번에 갚거나 미리 선불을 맡겨놓고 옷을 구입하는 등 그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온갖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 대표는 여태껏 세상을 살면서 고객들로부터 이토록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에 힘입어 그녀는 심기일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일어섰다. 고객들은 변함없이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그녀 역시 그러한 고객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다.

현재의 포라리, 브루다문 여성의류는 국내에서는 전통 있는 브랜드로서 중, 고가의 의류답게 재질이나 색상, 디자인 등에 있어 다양성과 고급스러움을 견지함으로써 특히 실버 세대에겐 어필하고 있는데 오랜 단골 고객들은 여전히 임 대표가 추천하는 의상을 신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버세대의 의류 트렌드에 대해서 묻자 과거엔 정장이 대세였으나 최근엔 원피스, 블라우스, 바지, 롱자켓, 조끼 등 개주얼 경향을 보인다고 하며 물실크 등의 천연소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들려준다.

평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임 대표는 제작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의 '희망나눔명패달기' 캠페인에 동참, 매월 사업장의 수익금 일부를 도내 취약 계층을 위한 후원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비록 작은 액수이지만 함께 할수록 더 즐거운 것이 나눔이라고 생각했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이토록 넉넉한 품성에도 활달하기까지 한 때문인지 그녀의 매장엔 언제 보아도 연륜이 느껴지는 여성 고객들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그 고객들 가운데 제일 만년니 격인 G씨는 "임 대표는 심성도 곱고 언제 보아도 명랑하고 편안하게 대해줘 오다가다 자주 들려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지인들이 많다"고 들려주는데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의상 구매와 관계없이 이토록 변함없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찾아주는 그분들께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주의 홍영선 언니가 언젠가 군산을 찾아주시기를 고대하고 있고 그 때가 기다려진다는 말을 끝으로 밝은 웃음을 보여준다.

**포라리·브루다문**  
군산시 영동22-5 (국민은행 앞)  
T.063)446-7797





매일 신선한 우유와 치즈를 공급받아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효덕목장 전국 유일의 카페인 수송동 'Cafe Cheese'(대표 김기훈, 김나현 부부).

30대의 동갑내기 젊은 부부가 창업을 했다. 회현 출신인 남편 김기훈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익산 소재 (주)옥시 레킷벤치에서 12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마침 천안에서 효덕목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 아내와 함께 지난 2017년 수송동 현대아파트 앞에 카페를 창업했다가 1년만인 지난 2018년 현재의 수송동 877번지로 이전해 운영해 오고 있다.

Cafe Cheese는 아담한 공간에 소품과 유니크한 테이블들을 활용해 실내인테리어를 꾸미고, 한편에는 실내 그네를 설치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손님들이 차 한잔과 함께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Cafe Cheese에서는 커피나 일반 음료 이외에도 효덕목장에서만 생산되는 밀크셰이크를 비롯해 요거트 스무디, 플레인 요거트, 생과일 요거트 등과 빵 종류로 '다쿠아즈'를 비롯해 요거트 케이크, 수제목장 케이크 등 다양한 효덕목장의 케이크들을 맛볼 수 있다.



매거진군산  
구독자  
업소 탐방

최고의 우유와 치즈로  
최고의 맛을 내다

전국 유일의 효덕목장

## Cafe Cheese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천안 소재 효덕목장은 아내 김나연 씨의 조모께서 창업, 운영해오다 최근에는 가업을 이어 처 작은 아버지께서 경영을 하고 있다.

매일 아침 소의 젖을 짜고 우유를 끓여 신선한 치즈를 만드는 효덕목장은 근처 드넓은 노지에서 직접 풀 사료를 재배해 소에게 제공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풀을 재배하는 땅 역시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관리하기에 최고의 우유와 치즈로 최고의 맛을 내고 있다.

효덕목장은 와인에 곁들여 먹으면 좋은 고다 치즈부터 카망베르, 푸른 곰팡이 치즈, 스트링 치즈, 요구르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 치즈 목장이기도 하다.

3년차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이제 '단골' 손님도 많이 늘어 피크타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효덕목장에서 나오는 신선한 치즈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김기훈 사장은 설명한다.

현재는 커피나 일반 음료, 효덕목장에서 가져오는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들 부부의 꿈은 시내 외곽에 아름다리 정원을 가진 Cafe Cheese 2호점을 오픈해 효덕목장에서 생산되는 치즈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소비자들과 만나고 싶다고 밝힌다.

Cafe Cheese가 현재는 작은 규모의 1호점이지만 머지않아 2호점 탄생을 기대하는 이들 젊은 부부의 희망과 기대처럼 효덕목장 Cafe Cheese의 무한한 성장을 기대해 본다.



Cafe Cheese 커피&디저트  
군산시 수송안1길 10  
T. 063-463-5252



## n번방에서 감방으로

2020년 상반기 한국 사회를 뒤흔든 두 개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코로나19'와 '텔레그램 n번방'일 것이다.

이중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범죄의 다른 양상인 비대면(非對面) 방식의 성범죄이며 성착취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대형사건이다. 그들 가해자들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와 속칭 노예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21세기형 인신매매를 자행했다.

이들은 마치 게임하듯 원격으로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해악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른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식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설계 되었는데도 모른다.

웰컴투 비디오와 n번방 속 가해자들이 상대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범죄는 현실 세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 디지털 기술이란 매개를 경유하여 만들어 낸 완전히 다른 세계에선 거침없고 영웅적인 행동이 된다. 인간다움을 만드는 선(線)이 완전히 무너진 세계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유출 혹은 유포의 피해를 입으면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강도는 더욱 격심해졌다. 반면 기술의 힘을 빌려 자신의 신원을 능숙하게 감추었다고 믿는 가해자들은 유포된 사진을 기다리는 관전자들의 '요구'에 부응했을 뿐이라며, 그나마 있던 가해자 의식마저 지운다. 심지어 이들은 가까이 있는 지인과 친족을 범행 대상으로 고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오래전 본 영화 '엑스퍼리먼트(The Experiment)'는 심리학자 짐바리도 교수의 스탠퍼드 감옥실험 실화를 소재한 영화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으며 인간의 본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공포를 느끼게 했다. "이것이 인간인가" 묻게 되는 지금 역시 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공포를 느끼게 했다.

버닝썬 사태와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사건, 웰컴투 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연속해서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지금은 여자'도' 인간이라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그런 남자들이 인간인지를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약물 강간을 하고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노예 방을 운영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시키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 새로운 성윤리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김은정  
군산시성문화센터 센터장  
전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팀장  
goni-ej@hanmail.net

##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 뿌리는

부부싸움에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 처가나 시댁을 싸잡아 욕하는 것이다. 요즘 아베 정부가 하는 짓이 꼭 이렇다. 일본은 우리가 G7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G7과 다르다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고 친 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참으로 속 좁은 섬나라다. 아마 속내는 너희는 선진국 G7그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인 심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앞서 올해 의장국인 트럼프는 G7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확대 의지를 밝혔다. 7개국 외에 한국, 인도, 러시아, 호주를 초청해 G11로 늘리는 방안이다. 한국은 교역 규모 10위, 군사력 7위다. 또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국이다. G7 회원국으로서 자격은 충분하다. 굳이 끼워달라고 하진 않지만 초청해 온다면 거절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앙금이 있는데 군국주의 후예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줄곧 과거사를 부정해 왔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웃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오만하다. 지난해 불거진 한·일 갈등만 해도 그렇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을 판결한 것은 늦었지만 상식에 부합한다. 위안부 합의 파기 또한 마찬가지다.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됐기에 국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보인 외교적 미숙함은 별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로 대응, 국제사회에 응징함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막판에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거둬들였다. 마지막 선을 넘지 않

겠다는 고육지책이었다. 일본은 아직까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를 빌미로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최근 완화된다는 보도가 있지만 한국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국은 K방역이란 글로벌 스탠더드를 세운 나라다.

'NO JAPAN' 1년 동안 일본도, 한국도 상처를 입었다. 일본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도 여행업계와 저비용 항공사, 호텔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해외로 떠난 2869만명 중 753만명이 일본을 찾았다. 4명 중 1명이 일본 관광을 다녀온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달라졌다. 지난해 일본 내 한국 관광객은 558만명으로 26% 급감했다. 'NO JAPAN'이 본격화된 하반기는 157만명에 그쳤다. 비자 발급이 강화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다.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를 알보는 행태에는 뿌리가 있다. 민족성도 그렇지만 미국이 조장한 탓이 크다.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계기로 일본 책임을 덜어줬다.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 보루로 활용할 목적에서였다. <미국,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꿈꾸는가>에는 이런 과정이 잘 묘사돼 있다. 리처드 맥그레거는 "(미국은) 전쟁을 지우고 일본 책임을 둘러싼 논란까지 삭제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역사학자 토머스 버거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서방 진영에 머물고 군국주의로 회귀하지만 않는다면 "과거사에 대한 뉘우침은 최소한 수준이어도 무방했다"고 했다. 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 일왕을 폐위하지 않고, 1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복원시켜 총리에 오르게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맥그레거는 "나아가 (미국은 일본이) 전쟁 배상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이는 일본에 잘못이 없다고 믿거나 굳이 과거를 고통스럽게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일본 보수층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며 거듭 미국 책임을 강조했다. 책임을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 우익들의 뻔뻔한 역사인식은 여기에서 배태됐다. 최근 존 볼턴 회고록을 계기로 백악관 네오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딱딱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밀접하다. 경제 규모 또한 세계 1위, 3위로 무시하기 어렵다. 이들을 일부러 적으로 돌리고 멀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당연시돼 온 외교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유일한 국가다. 또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이제 남북문제도, 외교도 우리가 주도할 때다. 국력과 국민 의식수준에 걸맞은 외교는 주권 국가라면 당연하다. 적어도 일본이 G7 회원 자격을 판별하는 오만함은 바로잡는 게 맞다.



임병식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 국회 부대변인  
montlim@hanmail.net



## 무엇을 위해 무엇이 되었나

치열했던 4.15 총선이 끝나고 3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우리는 지금 저들이 국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글이 발표될 시점에는 부디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할 일 하는 모습을 보기 바라는 심정이다.

야당 원내대표가 제 뜻대로 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의 사찰을 유랑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칩거 중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국회의원은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를 내팽개치고 사찰을 전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업무를 내던진 국회의원들이, 자신처럼 일은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찰을 떠도는 일반 공무원이 있다면 당장 징계를 요구하며 거품을 물 것은 분명하다.

그의 요구처럼 특정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것 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른바 칩거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고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우리는 구경이나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이다.

무엇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걸맞은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먹고살기 위한 목적만으로 어떤 일과 자리를 택했다고 해도, 최소한 그 일을 하고 얻는 대가에 맞는 일은 해야 한다. 건축업자라면, 받는 돈에 부끄럽지 않은 만큼의 건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공무원이라면 받는 월급에 맞는 만큼의 일은 해야 하고, 정치인이라면 누가 봐도 최소한 유권자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해진 월급을 받아야 한다.

남을 위한 삶에 자신을 던지기로 했다면 최소한 누가 봐도 그런 삶은 살아야 한다. 목사는 목회를,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고, 검사는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고, 판사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적어도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이 되었다면 최소한의 그 일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무엇을 하라고 그 자리를 만들어 준 사람에게 실망만 안겨 줄 뿐이라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인가 되어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처음에 원하고 바랐던 그 무엇을 위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남대진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 군산경기 침체와 폐기물 창고 화재

군산시의 주민등록 기준 지난 5월 말 인구는 26만 8558명으로 올 들어서 1573명이 줄었다. 1월 350명이 줄어든 것을 비롯해 2월 578명, 3월 435명, 4월 99명, 5월 109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군산시의 인구는 5월 기준으로 지난 2015년 27만 8444명에서 5년 만에 9886명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있던 2017년 2554명이 줄었고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2018년에는 2352명이 감소했다. (뉴스)

군산의 경제축을 이루고 있었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경기침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증가와 일자리를 향한 이주 그리고 골목상권의 붕괴와 더불어 수많은 경제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군산경제는 매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6월25일 밤, 비응도 산업폐기물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창고는 높이 21.8m, 길이 80m, 폭 50m, 총 연면적 4040㎡ 창고시설로, 이 산업폐기물 저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7일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창고 1동이 전소되어 소방서 추산 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47대 등 장비 151대와 진화 인력 61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창고 내부에 쌓인 수천의 폐기물로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창고 내부에 쌓여있던 폐기물은 9000여t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원인 규명에 노력하고 있으며,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고 외부인이 드나들기 힘든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자의 방화 일 수도 있다는 가정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어쩌면 폐기물 처리를 도맡아 쌓아 두고 있다가 처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방화사건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자연발화 사건일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 화재사건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군산지역의 빈 공장을 빌려 임차리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쌓아놓고 나중에 비용감당을 피하기 위해 불을 지르고 도주한 전형적인 모럴헤저드 사건이 아닐까 한다. 물론 추후 임차인이 나타나 소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군산시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빈 공장을 전수조사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진화에 일주일의 소요해왔던 소방당국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참담하게 만드는 한탕주의를 보여준 임차인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한 제조업의 침체가 불러온 군산의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시와 모든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펼쳐진 도덕적해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노력하는 시민이 잘사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다시 찾아오는 군산이 되도록 말이다.

#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 후 활성화 사업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지난 6월 9일(화)부터 군산시민예술촌에서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 후 활성화 시범사업”은 일선 학교에서 행해지는 방과 후 수업이 아닌 도내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한 수업들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획한 사업이다.

수업은 1기~3기로 봄학기, 여름방학, 가을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군산시민예술촌은 3개의 강좌를 개설해 스트링아트, 창작글쓰기, 우리의 전통춤을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4시부터 무료로 수업을 받는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학사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도 늦어지게 되었지만, 군산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각 학교 홈페이지와 SNS를 적극 활용한 홍보를 통해 전화로 30여명의 신청을 받았다.

수업을 진행한 창작글쓰기반 강사 노용무 시인은 “아이들이 첫 시간보다 강좌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질문을 던져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의 수업이 되어 교육자로서 가르치는 재미가 즐겁다.”말했고,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수업 만족도 역시 높다고 말하였다.

군산시민예술촌 박양기촌장은 “이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군산시민예술촌에 대해 알게되어 오고가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문화예술경험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좋은 과정이 있어서 좋았어요.

##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제 5기 대표자회 선거



2020 제5기 달그락 대표자회 선거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자회는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위해 대표회의, 청소년참여포럼, 연합캠페인 등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활동하는 조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똑똑팀’과 ‘SNS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각 팀의 청소년들은 애니메이션, 방송 등의 자치기구에서 꾸준히 활동해왔고,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느낀 변화가 필요한 내용들을 공약서에 담았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기적인 자치기구별 예산 공개, 소통하는 달그락을 만드는 sns채널 운영, 쾌적한 공간을 위한 청소의 날 지정, 위생용품 구비 등 연합회 내 청소년들이 활동할 공간을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바람이 담겨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대규모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고 온라인 선거로 대안을 찾고자 했다. 후보로 나온 두 팀은 회원들에게 문자로 공약서와 투표일정, 영상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유권자들은 개별 발송되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첫 여정, 달그락에 두 개의 포스터가 나란히 붙여진다.

SNS팀 진영 청소년의 출마계기가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이 하나 남겨졌다. “진영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달그락에서 꿈정지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는 최은희 선생님, 진영 청소년의 어머니이다. 최선생님은 선거관련 글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다섯 친구들의 도전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다.

수차례 모여 공약서와 영상을 제작한 두 팀은 달그락 회원들이

가입한 페이스북 그룹에 그 내용들을 올리며 자신들을 알리기 시작했다. 예은 청소년은 자치기구원들에게 두 후보의 공약을 발송하고, 달그락에 오는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공약서가 있는 게시판으로 안내하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후보자 토론회 방송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다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간식들과 ‘To. SNS 행복하세요’가 적힌 엽서가 놓여있었다. 엽서는 똑똑팀이, 간식은 SNS팀이 서로에게 전달해준 응원의 선물이었다. 방송에서는 각 팀의 출마계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제안 활동을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즐겁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예은 청소년, 많은 사람들이 달그락을 알게 되고 청소년 활동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영 청소년, 활동을 하며 좋았던 점, 보완해야 할 점들을 대표자회가 되어서 하나씩 발전시켜나가고 싶다는 해빈 청소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활동이 더 잘하고 싶어졌다는 성준 청소년의 진심이 방송 전파를 탔다.

투표결과는 SNS팀 42.6% / 똑똑팀 57.4%로 똑똑팀이 당선되었다. 단체카톡에 남겨진 “좋은 과정이 있어서 좋았어요.”라는 진영 청소년의 이야기처럼 그들은 서로가 달그락을 이끌어 갈 리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 안에서 선거를 마쳤다. 달그락에서 만들어 가는 또 다른 변화와 공동체의 성장 과정들을 기대해 본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우리 모두 그린

7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나 하나 간수하기 힘든 계절, 이때 화초를 키우는 가드너들도 식태기(식물 권태기)를 겪기 마련이다. 사람도 힘든데 화초들까지? 화초의 사정도 별 반 다르지 않다. 밖은 뜨거운 태양아래 축 처진 식물의 잎들은 까딱하면 말라죽기 마련, 남향이 주로 이루는 집안에서는 해가 들어오지 않아 옷자라고 온갖 병충해에 시달린다. 여러모로 힘든 계절, 물만 난 물고기 마냥 신난 식물이 있다. 바로, 열대식물들이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원산지라 우리나라의 여름과 딱 적기이다. 우리나라에는 몬스테라, 극락조화, 여인초, 야자 등 다양한 열대식물들이 있다, 그 중 갈기갈기 찢어진 큰 잎이 매력적인 셀로움을 소개한다.

## 필로덴드론 셀로움

학명 [Philodendron selloum]

유통명\_ 셀렘, 셀롬



### 셀로움 키우기

**빛 & 키우는 장소** 양지, 반음지 / 해가 잘 들어오는 창가 옆  
해가 잘 비추지 않는 곳에서 키울 경우 잎은 해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럼 줄기가 길게 늘어지게 자란다. 반음지나 그늘에서 키운다면 통풍과 습도에 신경써준다. 통풍이 나쁘면 과습이 오기 쉽고 병충해가 쉽게 생긴다.

**온도** 최저월동온도 13°C (노지월동 불가)  
고온다습한 열대지방 출신이라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걸 좋아한다. 기온이 완전히 풀리는 늦봄부터 여름에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준다. 겨울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잎 한 장 내지 않는다. 기온이 너무 낮은 곳에서 키울 경우 냉해를 입어 잎이 노랗게 변하게 되므로 따뜻한 곳에 옮겨주는 것이 좋다.



냉해입은 모습

**물**: 겉흙이 마르면 듬뿍 준다.

셀로움은 건조에 강한식물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고 성장이 주춤한 겨울에는 속흙까지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준다.

셀로움은 높이가 깊은 큰 화분에 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화분의 물 관리는 더욱 더 신경써야한다. 깊은 화분에 흙이 많이 심겨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고 물을 자주 준 경우 과습으로 뿌리가 힘들어한다. 물주기 전에 꼭 겉과 속 흙의 상태를 확인하여 물을 주기로 한다.

**분갈이** 배수가 잘되는 흙에 심어주기

건조에는 강하나 과습에는 취약하니 배수력이 좋은 상토나 마사를 섞어 심어주는 것이 좋다.

**병충해** 응애, 깍지벌레, 총채벌레

### 셀로움의 기근

셀로움을 오래 키우다 보면 목대가 생기면서 기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뿌리에서 얻지 못하는 영양분이나 수분을 기근에서 얻고자 뺏어 나간다. 이 기근을 흙 쪽으로 유도해서 키우거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면 잘라준다. 기근을 잘라내도 성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 셀로움의 새순

셀로움의 새순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많이 나오는데 몬스테라와 같이 돌돌 말려있다 점점 퍼지게 된다. 새순은 성질이 연해 살짝만 건들어도 상처가 쉽게 나기 때문에 주의한다. 잎이 퍼지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잎이 단단해지면서 색도 진해지면서 단단한 잎이 된다.



### 기존 잎의 관리

셀로움의 잎은 병충해가 생기지 않는 이상 본 모습 그대로 오래 유지하는 편이다. 잎이 크기때문에 먼지가 쌓이는게 눈에 보일 정도다. 한번씩 수건으로 닦아주거나 잎 샤워를 시켜준다. 물을 말리거나 과습으로 잎끝이 살짝 상했을때는 가위로 오려주면 깔끔하게 키울 수 있다.



### ★ 주의할점

셀로움의 잎과 줄기부분에는 독성물질이 있다. 잎을 씹어내거나 뿌리를 자를 때 수액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애완동물이 섭취하면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먹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다.



송한나 작가&가드너  
책 [선인장도 말려 죽이는 그대에게] 저자  
illprotectu@naver.com  
Instagram\_ @mimyo444

# 군산에서 공을 찬다는 것

우리나라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생활밀착형 미스터리들이 남아있다.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는 지 면을 먼저 넣는지, 물냉면을 시킬지 비빔냉면을 시킬지(만두는 필수),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찍어 먹는 찍먹류와 소스를 부어 먹는 부먹류로 극명하게 갈리며 답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들은 우리 일상에 항상 존재해왔다. 그 중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나만의 미스터리들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하면서 그 '내일'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육체를 움직이게 하여 땀을 흘리는 행위가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것만큼이나 나는 마음과 몸을 단련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영화와 tv를 시청하며 명상을 위해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가끔은 잠에 들기도 하는 행위 또한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흔히 사람들은 이를 '게을러터졌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게을러터진 나에게도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날이 찾아왔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 도중 축구가 주제로 떠올랐다. 축구라면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그 당시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종목이자 공 하나만 던져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달려드는 세대통합의 스포츠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들 소싯적 입었던 유니폼, 축구화와 함께 그라운드에서 만났다. 군산은 밤 9시까지 운영되는 시민체육공원과 더 늦은 시간에도 이용 가능해서 평일 직장인들도 이용 가능한 시설 실내 풋살장도 있다. 간혹가다 시민체육공원에서는 처음 보는 남자들끼리 축구 한판 하자며 뜨거운 즉석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군산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을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다.

축구는 특성상 혼자서 진행되기 어려운 종목이며 최소 6~8명이 모여야 가능하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실력을 떠나 공을 차고 즐기며 서로 더 끈끈해지던 과거 학창시절과는 달리 군산이 고향이 아닌 사람이 타지에서 축구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노력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군산에서 인간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나는 생각과 대화, 서로를 위한 마음이 있었기에 군산에서 즐겁게 공을 찬 일이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그날 우리는 3시간 동안 공을 찼고 다음 날 발, 다리, 허리가 남아나질 않았지만 다 같이 땀을 흘린 덕에 우리들의 사이가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다들 고만고만한 축구 실력 덕분에 큰 공감을 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어쨌든 이번 달도 군산의 체육시설과 좋은 사람들 덕을 보며 잘 살아남았다.



이준혁  
ijn1501@gmail.com

# 성명서

## 멸종 위기 2급 생물, 흰발농게의 이주 작업을 당장 멈춰라

고군산 군도의 대표적인 섬 선유도가 연륙교로 연결되어 관광지로 무차별적으로 개발되면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의 민원이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 선유도 초등학교마저 학생들을 전학시키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지는 지나친 민원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군산시는 본래 계획하였던 16만m(528,000평) 부지 중, 2만7천m(8,900평)로 대폭 축소하여 17% 정도만 개발하기로 하고 이 갯벌에 서식하는 흰발농게를 인근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개발 면적이 원래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산시와 전북지방환경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군산시는 갯벌에 사는 흰발농게 4만여 마리를 근 시일에 이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이주라는 명분으로 갯벌 파괴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어떤 생물체가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한다는 것은 그 지역만이 가진 특수성과 생존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주시킨 흰발농게가 아무 탈 없이 생존한다는 보장은 누가 할 것이며, 생존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갯벌을 파괴하여 메웠을 때 선유도는 과연 관광지로서의 본래 모습을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을 시작으로 선유도뿐 아니라 고군산 군도의 자랑인 천혜의 아름다움은 서서히 파괴되어 결국은 황폐한 상태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대규모의 주차장과 도로 건설보다는 해수욕장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최대한 간직할 수 있는 모습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기를 바란다.

또 무차별적인 난개발로 인하여 외지에서의 관광객이 급증할 경우 협소한 섬에서 쓰레기와 온갖 상술로 인한 생태 환

경적인 관광지로서의 모습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차량과 사람들이 몰려와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국은 관광지의 기능마저 사라져 마침내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관광객이 왜 꼭 자신의 차량으로 섬에 들어가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비응도 또는 신시도 등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이렇게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아름다운 선유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군산시는 매립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을 버리고, 최대한 고군산 군도의 아름다움이 최대 상품임을 명심하여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군산시는 이번 흰발농게 이주에 대한 허가를 전북환경청으로부터 받아서 진행 중이라고 한다.

과거 백석제에서 독미나리 군락이 발견되었을 때도 당시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군산시가 독미나리를 이주하려는 계획을 묵인 방조한 사례가 있었는데 과연 전북지방 환경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지 알기나 하는지 모를 일이다. 위에서 언급 한 대로 이주시킨 흰발농게가 살아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전북지방 환경청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주해도 생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군산시와 전북지방 환경청은 생태 환경을 보존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진행 중인 멸종 위기종 2급 흰발농게의 이주 작업을 당장 멈추고 이미 이주시킨 흰발농게는 원래 서식지로 돌려놓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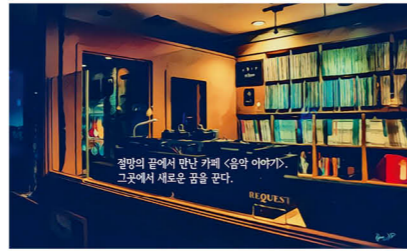
2020년 7월 2일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_ 임춘희 남대진  
담당자\_ 남대진 010-6355-2161

연대단체\_ 군산민들레포럼, 군산녹색당, 군산아이쿱, 군산평통사,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전북건설지사군산시위원회, 정의당군산시지역위원회, 한살림군산위원회.

## 카페 이야기

카페 <음악이야기>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후 삶의 의욕을 잃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의욕이나 희망 대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카페 <음악이야기>.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꾀다. 이 소설을 통해 함께 웃고, 같이 울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 잃어버린 꿈 현우(1)

노래도 못하는 현우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린다.  
'라라 라라 라라라 라라 라라 라라라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꽃신 신고 오는 아지랑이 속의 내님아  
네 창을 열어서 네 창을 열어서  
파란 하늘 가득 고운 꿈을 신고 날아라  
라라 라라 라라라 라라 라라 라라라'  
차에서 내려서도, 회사 건물로 들어가면서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사 출입문을 열면서도 현우는 그 노래를 계속 흥얼거린다. 유쾌함이 현우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처음이었다. 경리와 신미숙 과장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던 것은. 건설회사 드림메이커의 기획 실장 현우가 출근했을 때 그를 맞이한 신과장의 표정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심각한 그대로였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 불길함을 느꼈다.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말해봐요."  
"미주랑 금광에서 전화 왔었는데요."  
"무슨 일로요?"  
"어제까지 지불하기로 한 공사대금이 안 들어왔다고....."  
"무슨 소리예요? 왜 입금을 안 한 건데요? 그거 진즉에 지불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신과장님 업무 아닌가요?"  
"그게... 대표님이 오늘 입금하라고 하셔서....."  
"대표님이? 그럼 지금 입금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섬뜩함이 목덜미를 타고 뒷머리의 신경을 찌르며 올라왔다.  
"말해봐요."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 달에는 대표님이 관리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전부 인출하신 것 같습니다."

신과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정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는

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자마자 전화를 끊고 정대표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있었다. 정대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형, 어디야?  
"하청업체에 보낼 공사대금이 얼마죠?"  
신과장에게 묻는 현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있었다.  
"4억 2천6백입니다."  
"몇 군데죠?"  
"일곱 군데요."  
경리와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신과장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틀림없이 하청 업체의 전화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대표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카카오톡에도 메시지를 남겼지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우는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일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에 관한 궁금함과 아무래도 회사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에 몰두했을 뿐이었다. 신과장이 통화 중이던 전화를 손바닥으로 막고 현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주건설 대표님이 실장님 바꿔달라는데요?"  
현우는 전화를 받았다.  
"이현웅입니다."  
"이대표님, 이거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실장이 아닌 이대표라는 호칭이 현우의 가슴을 자극해왔다.  
"이대표가 아니라 이실장입니다."  
"그거야 그쪽 사람들이 쓰는 호칭일 테고요, 드림메이커는 이현우 실장님이 대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그렇게 돼 있을 텐데요?"

현우는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몇 달 전에 정대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현우 이름으로 하자고 제안했었다. 현우는 그의 제안에 공감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현우의 이름이 회사의 대표로 등록되어있다는 사실은 이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함을 안겨주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표님."

그는 마지막에 현우를 또다시 이대표라는 호칭으로 애써 부르는 것이 분명했다. 전화를 신과장에게 넘겨주기가 무섭게 핸드폰이

울렸다. 정대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전화를 봤다. 금광전기 강사장이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다.

그 뒤로도 회사에는 공사 대금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하청 업체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우의 핸드폰으로도 업체 대표와 임원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정대표의 집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회사에서 빠져나왔다. 아까부터 자꾸만 가슴에 통증이 일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통증은 격렬해졌다. 통증은 차에 올라탔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전에 없던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처음이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강렬한 공포감. 신두 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공포감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손과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발에서부터 온 힘이 빠져나감을 느꼈다. 달리는 자동차와 함께 땅속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은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니 호흡이 가빠지고 숨쉬기가 곤란했다. 메스꺼움으로 금방이라도 토할 것만 같았다. 곧이어 가슴에 통증이 일었다. 역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다. 칼로 난도질된 상처에 고추 가루를 뿌려대면 그런 고통일까. 마취하지 않은 채 날카로운 수술 칼로 가슴을 찌르면 그런 고통일까. 어떤 표현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강렬한 가슴 통증은 점점 더해갔다. 이렇게 죽어가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심근경색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죽음이 눈앞에 와있다고 생각했다. 예고도 없었던 이 뜻밖의 일은 앞 차를 들어받고 난 후에도 한참이나 계속되었다. 현우는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도 현우는 계속 정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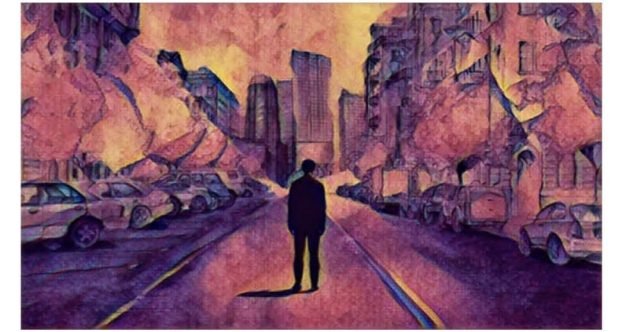
차가운 기계가 가슴과, 팔, 다리에 부착될 때, 현우는 낯선 느낌으로 자신도 모르게 웅얼거렸다. 현우는 그것들이 마치 자신의 삶을 해집어 놓을 것 같은 정대표와 한패거리처럼 느꼈다. 심전도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들려오는 기계 소리는 그의 온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할 때에도 어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시간이 없다는 생각으로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언제 누가 연락을 했는지 옆에 와있던 후배 수민은 그런 현우를 만류했다. 검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내시경 검사가 이어졌다. 수면 내시경을 권했지만 현우는 거부했다. 그렇게 한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검사를 하는 3분이 30분처럼 느껴질 만큼 곤혹스러웠다. 다 끝나간다는 간호사의 말을 믿었던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내시경 기계는 온 내장을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았다. 목구멍을 어찌나 자극하던지 현우는 계속 킁킁거리며 침을 질질 흘렸다.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귀속까지 들어갔다.

"심장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의 위염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 정도로는 그렇게 가슴통증이 있지는 않을 테고요."  
젊은 의사는 중얼거리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빌어먹을!"

기계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인지 병원 문을 나서는데 속이 메스꺼웠다. 여름 끝의 무더위가 몹시 불쾌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정



대표인가 싶었는데 누나였다. 또 다른 알지 못할 불길함이 가슴을 비집고 들어왔다.

"엄마가 알츠하이머란다."  
옆에 살면서 구순의 어머니를 보살피느라 지친 탓이었을까. 어머니의 불치병을 알리는 누나의 목소리는 지나칠 만큼 덤덤했다. 현우는 무슨 말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아무리 아흔살 노모이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 치매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현우는 충격으로 멍할 뿐이었다. 회사 공금과 함께 사라져버린 정대표와 생애 처음으로 찾아온 극심한 가슴 통증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머니의 치매 소식까지 얹히면서 현우는 주저앉고 싶었다. 극심한 우울감에 온 몸과 마음이 점령당한 것 같았다. 그래도 주저앉을 수 없었다. 얼른 정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민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다.

정대표에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열어보니 신과장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일곱 번이나 찍혀있었고 하청업체 사람들에게서 온 빨간 색깔의 부재중 전화도 여러 개였다. 바로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정대표였다. 가슴이 떨렸다.

-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이 빛은 죽을 때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으마. 지금 중국으로 간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정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속에서는 <스탠 바이 유어 맨 Stand by your man>을 노래하는 카를라 브루니의 목소리만 무심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안내 멘트를 듣던 현우는 핸드폰을 던지며 욕을 내뿜었다. 이런 개새끼!!

현우를 찾는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하청 업체들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정대표가 사라졌으니 서류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이현우 대표가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실장님이 무슨 잘못이냐며 얼른 정대표가 나타나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두 부류의 말 모두가 현우에게는 어차피 힘겨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또다시 극렬한 가슴 통증이 찾아온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이현웅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 ■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

상생과 나눔의 사회적 가치 확산 기대

군산시는 지난달 24일 지역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사회적경제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나보다 우리, 소유보다 나눔으로 새로운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함께'라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중시하는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최혁진 전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초청해 사회적경제 정책 동향과 지역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정길 8-1)'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및 교육·상담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수탁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선정되어 지난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환경에 적절한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해 왔던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상생과 나눔의 사회적가치가 지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안정적인 사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제1차 이사회 개최

태양광 SPC설립, 사규, 예산 등 주요안건 처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대표이사 서지만)가 지난달 30일 시청 면담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서지만 대표이사를 비롯한 6명의 임원이 참석, 회사의 예산과 주요 사규, 태양광 발전사업 SPC 설립 및 직원 채용계획 등 주요 안건을 검토했다.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올 예산은 군산시 출자금인 10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회사의 주요 내부 규칙인 사규는 직제 및 공인관리, 사무전결, 이사회 운영, 인사, 회계, 총무분야 등 총 10개 항목으로 제정했다. 또한, 육·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사무직원 채용건에 대해서도 임원들의 의견을 나누고, 세부 추진계

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지난주 발기인 총회에 이어 1차 이사회까지 회사의 주요 일정을 빠르게 진행해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다. 서지만 대표이사는 "군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며 "1단계 사업인 새만금의 지역주도형 육·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 특별 프로그램 진행

군산대학교가 군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군산센터)는 6월 18일부터 11월까지 위생 특별프로그램인 '영양사 출동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집단)를 대상으로 급식 전 단계 참여,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골고루 식판 차리기), 배식 준비(식탁 소독 및 배식량 측정), 교사 대상 1인 1회 적정 배식량 교육, 식사 지도, 잔반 수거 및 잔반량 측정, 프로그램 결과 설명 및 보고서 발송 등의 교육지원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아동 급식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식생활 교육과 식사지도 전문 영양사 선생님이 진행해 주니, 아이들이 더 골고루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현희 센터장(군산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교수)은 "이제 이론교육만 전달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군산시전북도, 군산항 방역 대응 긴급 현장점검

군산시와 전북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군산항 방역 대응 긴급대책반을 구성 군산시검역소, 서부항운노조, 군산항 하역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입항 선박의 하역 및 선적 절차, 항운노조원 및 하역사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 현장 확인, 상황별 항만관계자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사태의 경우 러시아 항만노동자가 러시아 선원을 접촉했 코로나가 대량 확산됨에 따라, 긴급합동대책반은 노조, 하역사 등을 대상으로 선원들과의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검역당국에는 현재 실시중인 모든 선박에 대한 승선검역 및 선원에 대한 건강상태 현장 확인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재차 요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직접적 노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 근로자를 위해 방역복 50벌, 마스크 3,000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며, "이번 마스크 2,000개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전했다.

## ■ 코로나19 극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휴·폐업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희망일자리사업의 경우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추진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총 1,576명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1일 4~8시간 일하게 되며,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4대 보험 가입 및 주·월차 수당 등을 지급한다. 모집 기간은 29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희망사업, 경력(특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시청 각 사업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되어 코로나19 확산방지 생활방역 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 행정업무 지원,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신청자 자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오는 7월 24일 발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 군산시 보건소, 해충방역 실시

연기·냄새 없는 친환경 방역소독

군산시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연기·냄새 없는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시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충제를 물에 희석해 대기에 분무하는 친환경 방역방식인 연무소독을 실시한다. 경유를 희석해서 사용하는 연막소독은 해 뜨기 전 주거환경 주변 풀숲 등 주요 서식처나 하수구, 창고 등의 공간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친환경 소독은 살충제의 희석 용제로 경유 대신 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뿌엇게 보이



던 연기와 냄새가 없어 환경오염 발생과 인체의 유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잔류효과가 뛰어나 장시간 살충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위생해충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군산시, 찾아가는 청렴 소통교육

시는 오는 7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최근 5년 이내 입사한 신규 공무원(청경, 공무원 포함) 705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청렴 소통교육을 실시한다. 2020년 1월 현재 군산시 공무원으로 최근 5년 이내 입사한 인원은 705명이며 군산시 공무원 현원의 약 50%에 달한다. 짧은 기간 급격한 세대교체로 중간관리자(6급)와 직원 간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할 10년 이상 근무경력자 부족으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소통 및 갈등관리 전문 강사가 권역별 해당 장소에 찾아가 최근 5년 이내에 입사한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통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조직문화 조성 및 새내기 직원들의 목소리 청취를 통한 의견 반영으로 조직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번기 일손돕기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지난달 24일 막바지 감자 수확철을 맞아 코로나 19 사태속에 극심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도움을 손길을 전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성산면 산곡리 일원 2,500㎡ 규모의 감자밭에서 감자캐기, 선별포장 등 감자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봉사활동 중에도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관련 안전수칙을 지켰다. 문영업 농촌지원과장은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감자 농사의 성공은 수확 시기와 수확 후 관리에 있는 만큼 적기에 수확해서 예비저장 후 용도에 맞게 저장온도와 습도 및 환기 조절 등 저장조건을 잘 지켜 애써 농사지은 감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농장주 전원순씨는 "무더운 날씨에도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줘 한시름 덜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03	04
제29회 전북무용제 군산 예술의전당				뮤지컬 아리랑 클래식스토리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 아리랑 육민경&윤지희 듀오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 아리랑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5	06	07	08	09	10	11
				박선영 피아노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2	13	14	15	16	17	18
			2020 전국 탑10 가요쇼 녹화 군산 예술의전당		혁신필하모닉오케 스트라 제5회 정기 연주회 아시스 플루트 앙상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9	20	21	22	23	24	25
드림필하모닉오케스 트라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봉기 피아노 독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교향악단 제61회 기획 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뮤지컬 레베카 전주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뮤지컬 레베카 피아니스트 이은영의 건반 위의 이야기 열세번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6	27	28	29	30	31	
뮤지컬 레베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립교향악단 기획공연 '로맨틱 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 | 군산예술의전당  
클림트의 황금빛 비밀 레플리카전 2020-07-04 ~ 2020-08-08  
제12회 예목회 회원전 2020-07-17 ~ 2020-07-2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07.04(토)~07.19(일) 2020 청년작가 공간기획展 - 박지은 옷칠화전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   |  |   |
|---|--|---|
| <p><b>모세스영아원</b><br/>군산시 상천로 82-13(개정동)<br/>(063) 452-4075</p>    | <p><b>구세군군산후생관</b><br/>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br/>(063) 445-9331</p> | <p><b>삼성애육원</b><br/>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br/>(063) 445-5947</p>      |
| <p><b>일맥원</b><br/>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br/>(063) 462-2385</p>         | <p><b>신광모자원</b><br/>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br/>(063) 462-7749</p>     | <p><b>신광모자자립원</b><br/>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br/>(063) 461-8572</p>     |
| <p><b>구세군군산목양원</b><br/>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br/>(063) 466-6088</p> | <p><b>나눔의집</b><br/>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br/>(063) 464-9944</p>    | <p><b>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b><br/>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br/>(063) 466-7981</p> |





# 군산 제1호 태양광모듈 공장 설립

(주)참빛솔라에너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태양광,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주)참빛솔라에너지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3-25번지

Tel. +82-41-549-0600

Fax. +82-41-532-8291